

# 의료관광 산업분류체계 설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5. 6.





## 제출문

---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의료관광 산업분류체계 설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박 광 무

---



# contents 목차

I.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범위 및 방법.....	5
3. 연구수행절차.....	8
II. 의료관광 현황분석	
1. 의료관광 트렌드.....	11
2. 의료관광객 유치현황 및 지출규모.....	16
3. 의료관광객 활동 및 행태.....	26
4. 의료관광 관련 제도 및 규제현황.....	30
5. 소 결.....	37
III. 의료관광의 개념 및 영역설정	
1. 의료관광의 개념 및 정의.....	41
2. 의료관광의 유형.....	48
3. 의료관광의 영역 및 관련 사업체.....	55
IV. 의료관광산업의 분류체계 설정	
1. 표준산업분류 및 관광산업 특수분류.....	63
2. 의료관광 분류 기준 및 방법.....	69
3. 의료관광의 산업분류체계(안).....	75
4. 시사점.....	94
V.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1. 분석체계 및 분석방법론.....	99
2. 산업연관표상 의료관광산업분류 및 지출액.....	102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105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117
2. 결 론.....	119
부 록.....	123

# contents 목차

## 표 목차

<표 2-1> 진료유형별 외국인(실)환자.....	61
<표 2-2> 진료유형별 외국인(연)환자.....	71
<표 2-3> 외국인 환자 규모별 의료기관.....	71
<표 2-4>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2009-2014).....	81
<표 2-5>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	91
<표 2-6> 2009-2014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92
<표 2-7> 지역별 외국인 환자(2009-2014).....	122
<표 2-8>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현황(2009-2014).....	22
<표 2-9> 진료비 구간별 외국인 환자.....	32
<표 2-10> 국적별 평균 진료비 지출 현황(2013~2014년도).....	42
<표 2-11> 의료관광객 평균지출금액.....	52
<표 2-12> 국적별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 경로.....	72
<표 2-13> 국적별 의료관광 정보 습득 경로.....	82
<표 2-14> 국적별 유치업체 이용.....	82
<표 2-15> 한국방문의 주된 목적별 한국의료 만족도.....	92
<표 2-16> 정부부처의 의료관광 추진 부처.....	93
<표 2-17> 의료관광 관련 의료기관의 주요인증제도.....	33
<표 3-1> 의료관광의 정의.....	54
<표 3-2> 관광객의 치료목적에 따른 의료관광유형 분류.....	84
<표 3-3> 의료관광 방문 목적별 의료관광 유형.....	94
<표 3-4>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유형별 분류.....	95
<표 3-5> 의료관광상품에 따른 의료관광 유형.....	95
<표 3-6> 의료관광상품에 따른 의료관광 유형.....	95
<표 3-7> 의료관광의 영역.....	95
<표 3-8> 기타 의료관광 지원사업 유형.....	96
<표 4-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체계.....	46
<표 4-2>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96
<표 4-3> 관광산업특수분류 부문별 범위 및 내용.....	98
<표 4-4> 의료관광산업분류의 필요성.....	17
<표 4-5> 의료관광산업분류 필요성의 세부항목.....	17
<표 4-6> 의료관광산업의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	27

# contents 목차

<표 4-7> 의료관광 통계생산의 필요성	27
<표 4-8> 의료분야 공급기관 유형과 서비스 분야	57
<표 4-9> 관광분야 주요 서비스 분야와 공급사업체	77
<표 4-10>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의료관광산업 관련 부문	87
<표 4-11> 관광사업자의 의료관광 포함의견	28
<표 4-12> 비의료 행위의 의료관광 포함의견	28
<표 4-13> 의료관련 제조 및 유통분야의 의료관광 포함의견	38
<표 4-14>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와 의료관광산업의 연관성 설문 결과	38
<표 4-15>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의료관광산업 대분류 대응	68
<표 4-16> 의료관광산업분류체계(안)	78
<표 4-17> 의료관광산업분류 세분류별 주요산업	98
<표 4-18> 의료관광산업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세세분류)	29
<표 5-1> 의료관광 관련 지출항목과 산업연관표와 연계	13
<표 5-2> 의료관광객의 활동분야별 지출금액	14
<표 5-3> 의료관광산업의 유발 계수	15
<표 5-4> 의료관광산업의 경제효과	18
<표 5-5> 의료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	18
<표 5-6> 의료관광산업의 취업유발효과	11
<표 5-7> 의료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
<표 6-1> 의료관광객의 활동분야별 지출금액	7
<표 6-2> 의료관광산업의 경제효과	18

# contents 목차

## 그림 목차

[그림 2-1] 아시아 의료관광 방문객 수(왼쪽)와 아시아 의료관광시장 규모(오른쪽)...	21
[그림 2-2] 대륙별 의료관광 방문국가 분포.....	2
[그림 2-3] 2009~2014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	14
[그림 2-4] 의료관광객 활동분야별 평균지출 금액.....	25
[그림 2-5] 의료관광객의 의료서비스이외의 활동.....	26
[그림 2-6] 본인 포함 의료관광객의 동반자수.....	27
[그림 3-1] 외국인환자군별 진료외 활동 구성비.....	32
[그림 3-2] 기반시설 및 서비스 유형에 따른 의료관광의 분류.....	54
[그림 3-3] 의료관광 주요서비스 공급주체.....	55
[그림 4-1] 의료관광 산업분류 체계 설정 과정.....	74
[그림 5-1] 의료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과정.....	99

# I.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수행절차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 차세대 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의료관광 산업

- 의료서비스산업이 국제시장에 개방되면서 의료와 관광의 융·복합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은 미래지향산업으로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RNCOS(2013)에 의하면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2004년 400억 달러에서 2012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2015년 약 1,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최근 해외 의료 관광객 증가, 서울대 병원의 UAE왕립병원 위탁운영 등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 해외진출 및 외국인 유치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실적(실 환자 기준) 2009년에 6만 명, 2010년 8만 2,000명, 2011년 12만 2,000명, 2013년 21만 1,000명, 2014년 2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융합산업으로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합의된 인식 및 산업적 접근 필요

- 의료와 관광산업의 융합 및 확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융합을 통한 산업영역확장, 상상력과 창의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을 지향하는 현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가치와도 부합됨
- 그러나 융합산업으로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합의된 인식이 저조하고 체계적인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의료관광은 의료기관 중심의 해외환자 유치사업과 관광중심의 의료관광이 혼재되어 있으며 점차 의료와 관광이 융합되어 가고 있으나 의료관광산업의 분류체계 및 범위 등이 미확립 되어 객관적인 정책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

### ■ 의료관광산업 개념·범위 및 분류체계 설정 필요

-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관광산업’ 분류표 마련을 통해 융합산업으로서 의료관광의 정책적 판단 자료 마련 및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범위설정이 필요함
- 또한 의료관광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설정을 통해 관련 산업의 투자 및 진흥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의료관광 산업 통계 자료의 생

성이 필요함

- 현재 의료관광통계 자료의 생산은 의료관광객의 의료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의료관광객의 관광활동 및 관광 지출에 대한 통계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한 통계작성이 이루어져야 함

■ 융합산업의 분류체계 마련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 마련

- 의료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간재로서 또는 최종소비재·자본재로서 다른 산업 부문과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 융합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과 정에서의 타당한 근거자료 생성

## 2 연구범위 및 방법

### 2.1 연구 범위

#### ■ 의료관광산업의 개념정립 및 분류체계 설정

- 의료관광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들이 개념적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나 합의된 정의는 부재한 실정임
- 국내 관광진흥법 제 12조의 2항에 따르면 “의료관광이란 국내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함
  - 관광진흥법에서는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처럼 보건분야와 관광분야에서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고 있어 정책영역설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산업의 범위 등을 정리하고 분류체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 의료관광산업의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마련

- 의료관광산업의 분류 기준을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하고 의료관광사업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기준 및 국제관광통계권고안(IRTIS: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for Tourism Statistics), 산업분류체계 관련 문헌을 심층 분석하여 관광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관광사업의 산업분류체계 설정

#### ■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0년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산업과 타 산업과의 연관성 분석 및 의료관광산업 산출액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사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 2.2 연구 방법

### ■ 국내 외 문헌 분석 연구 및 전문가 자문 수행

- 의료 및 관광관련 논문, 해외 자료, 정책보고서 등 관련 문헌분석을 통하여 의료관광산업, 사업 등 각종 용어의 정의, 사업 목적과 지원 범위에 대한 개념 정립
- 관광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료관광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관광산업의 개념 정립 및 분류체계 설정

### ■ 전문가 설문조사 수행

- 조사 배경 및 목적
  - 의료관광 산업 분류체계 설정을 위한 의료관광 산업범위, 관련 정책과 분류개발의 필요성, 분류체계(안)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함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관광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의료관광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하고자 함

### ■ 유관기관 협조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등 실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협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의료기관, 유치업체, 뷰티·헬스 등 웰니스 업체 대상 상위 기업 조사
- 통계청 및 관련 전문가 협의, FGI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업종분류체계 및 KSIC 기준 의료관광산업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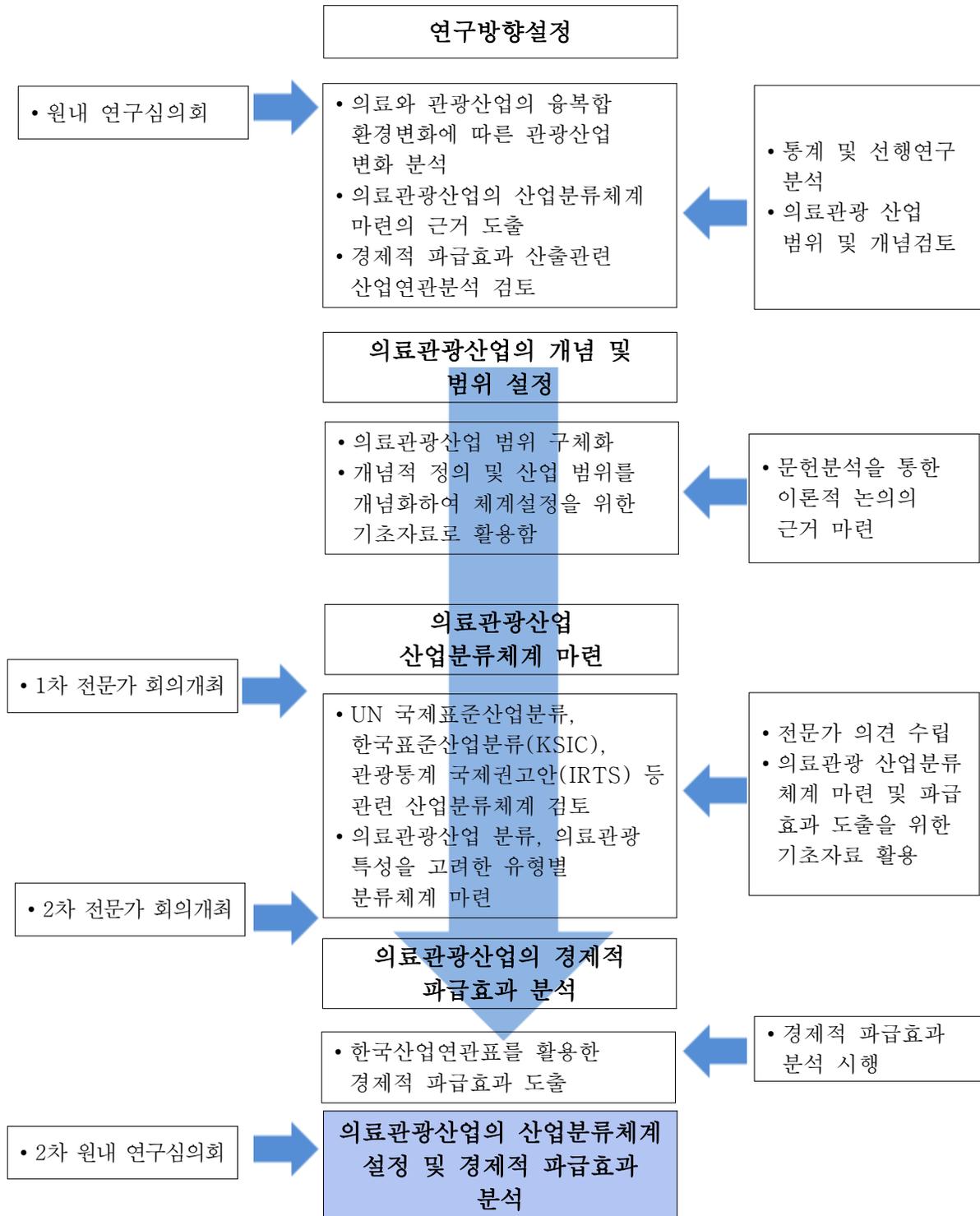
###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KSIC)적용 체계 구축

- 선정된 의료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국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적용하여 의료관광산업을 분류함

### ■ 한국산업연관표 활용 경제효과 분석

-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의료관광객의 지출액 산정을 토대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함

### 3 연구수행절차





## Ⅱ. 의료관광 현황분석

1. 의료관광 트렌드
2. 의료관광객 유치현황 및 지출규모
3. 의료관광객 활동 및 행태
4. 의료관광 관련 제도 및 규제현황
5. 소 결



# 1 의료관광 트렌드

## 1.1 의료관광의 세계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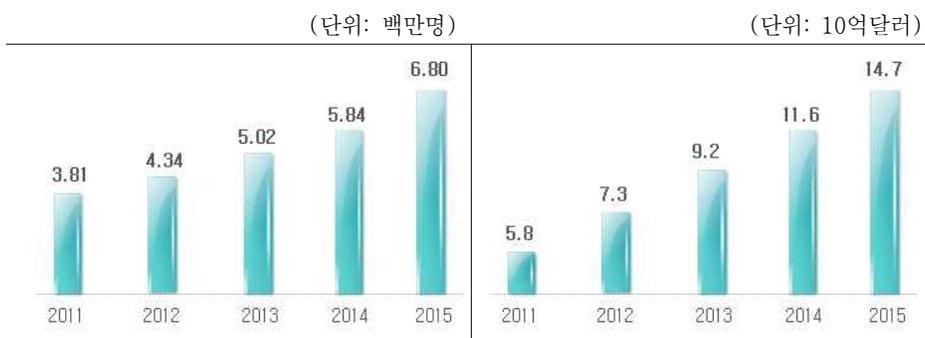
### ■ 의료관광산업의 성장

-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계 지출에서도 의료비의 비중이 점차 들어 나고 있으며 동시에 복지수준의 향상, 의료기술 발달,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연결되고 있음
-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개별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의체 증가는 의료기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음

### ■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 우세<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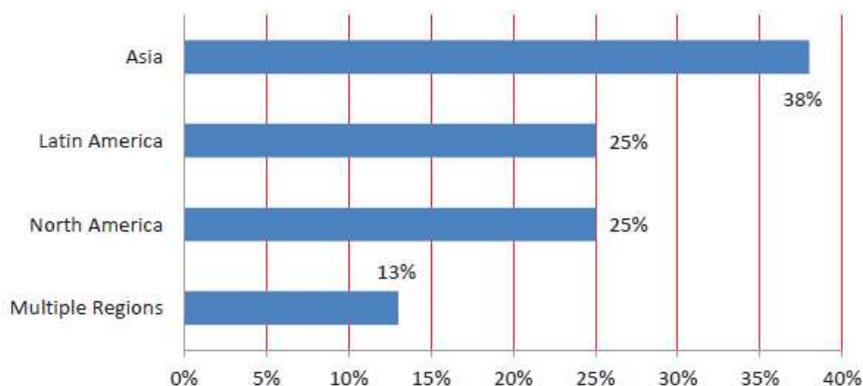
-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2012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2019년 약 3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Transparency market research, 2013)하며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연평균 17.9%의 성장률이 예측됨
- RNCOS(2014)는 아시아 의료관광객 수는 2012년 430만 명에서 2015년 68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의료관광 총 수입은 2012년 73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국가들은 저렴한 진료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짧은 대기시간, 관광이 결합된 휴식 제공 등 의료관광 허브(Hub)로서 입지 구축
- MTA(Medical Tourism Association, 2013)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은 전체의 38%로 가장 많은 의료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미(25%), 남미(25%) 기타 대륙(13%) 순으로 나타남

1) 서울특별시(2015). 서울의료관광 실태분석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재구성



자료: RNCOS(2014). Asian Medical Tourism Market Forecast to 2015

[그림 2-1] 아시아 의료관광 방문객 수(왼쪽)와 아시아 의료관광시장 규모(오른쪽)



자료: MTA(2013). Medical Tourism Survey 2013.

[그림 2-2] 대륙별 의료관광 방문국가 분포

- RNCOS(2014)는 아시아 국가 중 태국, 인도, 싱가포르를 2015년까지 아시아 전체 의료관광 시장의 9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 과거 의료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한 유럽의 비중이 상당부분 감소한 반면 의료관광객의 목적지는 중남미 및 중동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 영국의 경우 치료를 위한 대기시간은 심장수술, 척추수술, 파킨슨 병 등이 9~11개월, 뇌종양이 6~8개월로 나타남
  - 자국에서의 대기시간 해소, 선진국의 무 의료 보험자들의 해외원정 치료증가, 신흥국의 저렴한 의료비와 의료기술 수준 향상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의 지속적 성장

- ‘Wellness Tourism 2020’보고서에 의하면 웰니스 관광은 해외관광과 국내 관광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형태중의 하나로 적어도 5~10년 후 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 예측함

- 웰니스 관광목적지는 현재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에 위치한 웰니스 관련 호텔과 리조트 등이 큰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하지만 중유럽과 동유럽 등 온천과 같이 천연 자원을 이용한 치료적인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나 미용치료, 스파, 마사지, 사우나 등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이를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함

## ■ 전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성장요소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간한 ‘Travelling for health: the potential for medical tourism’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인 의료관광산업의 성장요소와 어떤 나라가 목적지로서 가장 이득을 보는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글로벌기술: 인터넷을 통해 환자들은 국경을 넘어 치료옵션을 찾을 수 있음
  - 낮은 운임의 항공편: 외국여행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자유화: 소비자가 자국 밖에서 서비스를 찾도록 함
  - 외국자본의 투자: 많은 나라에서 현대식 병원을 건설함
  - 의료인력의 국제화: 외국에서 경험을 쌓은 의료 인력들이 존재함
  - 의료관광에이전시: 의료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에이전시의 증가
- 동 보고서에서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의료관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개인이 함께 협조해야한다고 지적함
- 의료관광은 모든 나라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자국의 정치, 내부보안문제, 의료기술과 시스템의 부족, 관광인프라와 정부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실패를 경계해야함

## 1.2 국내 의료관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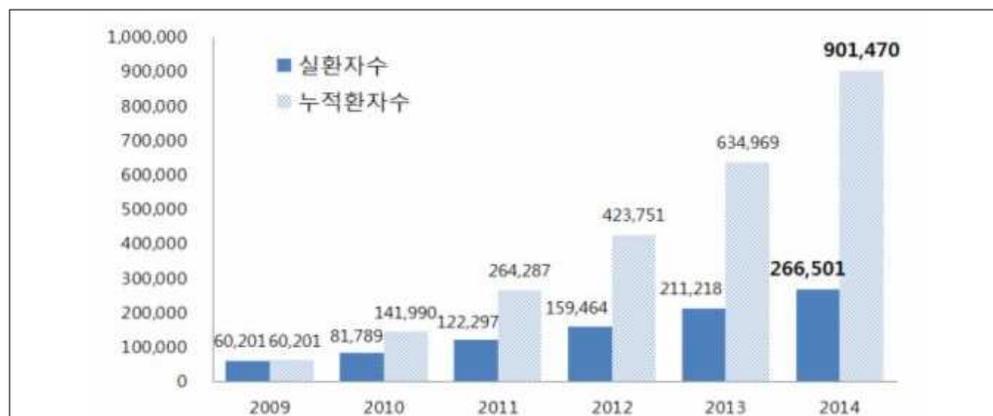
### ■ 의료관광시장의 빠른 성장

- 국내에서는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된 이래 메디컬 비자 도입, 유치기관 등록제, 의료기관의 숙박업 및 부대사업 인정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2008년 27,480명에서 2009년 60,201명으로 약 119%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도에는 2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보건산업진흥원, 2015)

- 2014년도 의료관광객의 총 진료비 수입은 5,569억 원으로 2013년도 대비 47.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63.8% 증가세를 보여 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 비중은 OECD평균의 77.8%, 1인당 국민의료비는 66.3% 수준으로 OECD국가 대비 의료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그림 2-3] 2009~2014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 ■ 높은 의료기술 수준

- 한국관광공사(2014)는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관광 목적지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의료기술’ 이라고 지적함
  - 한국관광공사가 2014년 방한 의료관광객 1,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관광 방문 목적으로 전체의 40.8%가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 수준’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이용과 함께 관광’이 33.2%, ‘다른 목적으로 방한하였으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이 24.6%로 나타남
- 국제의료기관인증(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의료기관 증가
  - JCI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엄격한 표준의료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게 발급되는 인증임
  -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세밀하게 평가됨
  - 국내 JCI 인증의료기관 수는 총 27개소로 나타남(2015.8월 기준)

## ■ 저렴한 의료비

- 이창우 외(2013)는 29개 질환을 대상으로 OECD 13개국의 의료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의 수준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논의함
  - 특히, 최근들어 발병률이 높은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의료비는 가장 높은 이탈리아의 8,287달러에 비해 한국은 1,174달러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이해중(2012)는 CT나 MRI등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건강검진비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가장 낮다고 지적함
  - 한국은 약 54달러로 OECD국가 중 가장 저렴한 반면 미국은 약 510달러로 약 10배 이상차이가 남

## ■ 한류의 영향<sup>2)</sup>

- 케이팝(K-pop), 케이뷰티(K-beauty), 케이패션(K-fashion)등을 아우르는 케이컬처(K-culture)의 확산에 따른 문화상품의 수출은 후광효과로 의료관광산업 발전의 이점으로 작용함
- 미용 및 성형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의료관광객 중 중국인과 일본의 관광객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에 한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산업연구원(2013)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에 대해 경험하고 싶은 것에 대해 ‘한식 체험’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용·의료’체험이 응답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한류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큼

2) 산업연구원(2013).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재구성.

## 2 의료관광객 유치현황 및 지출규모

### 2.1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sup>3)</sup>

#### ■ 외국인 환자 실환자<sup>4)</sup> 및 연환자<sup>5)</sup>

- 우리나라 의료관광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외국인 실 환자 수는 연평균 34.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도 의료관광객은 약 6만 명에서 2014년도 26만 명 수준으로 약 4.3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진료유형별 외국인(실)환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09-’14년 평균)
입원	3,915	7,987	11,945	14,809	20,137	23,855	43.5
외래	56,286	63,891	95,810	128,711	172,702	221,672	36.5
건강 검진		9,911	14,542	15,944	18,379	20,974	20.6
계	<b>60,201</b>	<b>81,789</b>	<b>122,297</b>	<b>159,464</b>	<b>211,218</b>	<b>266,501</b>	34.7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 연인원 기준 환자 수는 총 816,691명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대비 25.6%가 증가함
  - ‘14년 방한 외래 관광객은 1,400만 명을 달성하였으며, 방한 외래 관광객 대비 외국인환자의 비중은 약 5.7%를 차지함
  - 입원하는 연환자 수는 ‘09년 이후 연평균 64.7%의 증가세를 보임

3) 보건복지부(201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함

4) 외국인환자 실 환자는 실제 내원환자를 의미함

5) 실제로는 한명일지라도 여러 차례 진료를 보게 되면 각 과마다 건수를 각각 집계한 수치를 의미함

<표 2-2> 진료유형별 외국인(연)환자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09-’14년 평균)
입원	26,707	54,057	92,758	184,782	248,398	323,273	64.7
외래	135,931	170,203	251,649	290,157	402,013	493,418	29.4
계	162,638	224,260	344,407	474,939	650,411	816,691	38.1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 의료관광객 규모별 의료기관

- 1천명 이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은 총 65개 기관으로 연간 1백명 이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은 306개 기관으로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 1,389기관에서 1천명 이상의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65기관이 전체 환자 유치의 60.3%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관광 편중이 나타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5)

<표 2-3> 외국인 환자 규모별 의료기관

(단위 : 개소, 명, %)

구분	의료기관수 (비중)	환자수 (비중)
1천명 이상	65 (4.7%)	160,805 (60.3%)
5백-1천명	56 (4.0%)	42,720 (16.0%)
1백-5백명	185 (13.3%)	42,329 (15.9%)
10-1백명	582 (41.9%)	18,583 (7.0%)
10명 미만	501 (36.1%)	2,064 (0.8%)
계	1,389 (100%)	266,501 (100%)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 의료관광객 국적별

- 2014년도 기준 방한 외국인 환자의 비율은 중국이 2013년도에 이어 1위로 29.8%를 차지하였으며 2위인 미국은 13.3%, 3위인 러시아는 11.9%를 차지하였음
- 2014년도 한국의료를 이용한 의료관광객의 국적은 총 191개국으로 나타났으며 100명 이상 유입국가는 56개국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 간 환자송출 협약의 성과로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전년대비 128.8% 증가한 2,633명이 유치되었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는 404억 원으로 전년대비 9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카자흐스탄(177.8%), 우즈베키스탄(40.2%) 등 정부간수출계약(G2G)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전략국가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한편, 일본지역에서 방문한 의료관광객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보여 2013년 방문객수 16,849명에서 2014년 14,336명으로 감소함

<표 2-4>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2009-2014)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14년 증가율
중국	4,725 (7.8%)	12,789 (15.6%)	19,222 (15.7%)	32,503 (20.4%)	56,075 (26.5%)	79,481 (29.8%)	41.7
미국	13,976 (23.2%)	21,338 (26.1%)	27,529 (22.5%)	30,582 (19.2%)	32,750 (15.5%)	35,491 (13.3%)	8.4
러시아	1,758 (2.9%)	5,098 (6.2%)	9,651 (7.9%)	16,438 (10.3%)	24,026 (11.4%)	31,829 (11.9%)	32.5
일본	12,997 (21.6%)	11,035 (13.5%)	22,491 (18.4%)	19,744 (12.4%)	16,849 (8.0%)	14,336 (5.4%)	▽ 14.9
몽골	850 (1.4%)	1,860 (2.3%)	3,266 (2.7%)	8,407 (5.3%)	12,034 (5.7%)	12,803 (4.8%)	6.4
카자흐	128 (0.2%)	346 (0.4%)	732 (0.6%)	1,633 (1.0%)	2,890 (1.4%)	8,029 (3.0%)	177.8
베트남	327 (0.5%)	921 (1.1%)	1,336 (1.1%)	2,231 (1.4%)	2,988 (1.4%)	3,728 (1.4%)	24.8
캐나다	984 (1.6%)	1714 (2.1%)	2051 (1.7%)	2756 (1.7%)	2770 (1.3%)	2,941 (1.1%)	6.2
UAE	17 (0%)	54 (0.1%)	158 (0.1%)	342 (0.2%)	1,151 (0.5%)	2,633 (1.0%)	128.8
필리핀	356 (0.6%)	957 (1.2%)	1,178 (1.0%)	1,787 (1.1%)	1,848 (0.9%)	2,032 (0.8%)	10.0
우즈벡	113 (0.2%)	298 (0.4%)	491 (0.4%)	824 (0.5%)	1,358 (0.6%)	1,904 (0.7%)	40.2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 Ⅰ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환자

-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남(기타병원 제외)
- 가장 많은 의료관광객 유치현황을 보인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실 환자 82,578명을 차지하여 전체의 31.0%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국민보건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의해 전체 병상의 최대 5%의 비율을 넘

지 못해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이래로 치과병원의 의료관광객 연 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53.4%를 나타내고 있어 의료관광분야에서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됨

<표 2-5>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14년 증가율
상급종합	27,657 (45.9%)	35,382 (43.3%)	47,000 (38.4%)	60,262 (37.8%)	77,738 (36.8%)	82,578 (31.0%)	6.2
종합	11,537 (19.2%)	16,787 (20.5%)	26,495 (21.7%)	33,933 (21.3%)	52,996 (25.1%)	74,830 (28.1%)	41.2
병원	8,407 (14.0%)	6,937 (8.5%)	11,016 (9.0%)	16,269 (10.2%)	18,638 (8.8%)	26,239 (9.8%)	40.8
치과병원	467 (0.8%)	1,285 (1.6%)	2,219 (1.8%)	3,382 (2.1%)	3,513 (1.7%)	5,388 (2.0%)	53.4
치과의원	716 (1.2%)	1,432 (1.8%)	1,299 (1.1%)	1,778 (1.1%)	2,543 (1.2%)	3,133 (1.2%)	23.2
한방병원	1,217 (2.0%)	2,216 (2.7%)	4,822 (3.9%)	5,597 (3.5%)	4,799 (2.3%)	5,352 (2.0%)	11.5
한의원	926 (1.5%)	1,952 (2.4%)	5,067 (4.1%)	3,995 (2.5%)	4,592 (2.2%)	4,949 (1.9%)	7.8
의원	9,274 (15.4%)	15,798 (19.3%)	24,370 (19.9%)	34,166 (21.4%)	46,366 (22.0%)	63,037 (23.6%)	36.0
기타	0 (0%)	0 (0%)	9 (0%)	82 (0.1%)	33 (0.0%)	995 (0.4%)	2915.2
계	60,201 (100%)	81,789 (100%)	122,297 (100%)	159,464 (100%)	211,218 (100%)	266,501 (100%)	26.2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 ■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진료과는 내과통합으로 실환자 79,377명이 내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가 36,224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남
  - 성형외과의 외국인 환자 현황은 36,224명으로 전체의 약 10.6%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50.5%로 의료관광객들의 K-pop관련 성형열풍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내과와 성형외과에 이어 검진센터가 35,858명으로 전체의 10.1%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피부과가 29,945명으로 전체의 8.4%로 나타남
-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55.2%로 가장 높

계 나타났으며 상위 10개 진료과내에서 7위를 차지함

- 이는 라식 및 라섹 등 수술환자의 증가와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6> 2009-2014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14년 증가율
내과통합	18,398 (28.5%)	23,632 (23.3%)	34,330 (22.2%)	45,994 (22.2%)	68,453 (24.4%)	79,377 (22.3%)	16.0%
성형외과	2,851 (4.4%)	4,708 (4.6%)	10,387 (6.7%)	15,898 (7.7%)	24,075 (8.6%)	36,224 (10.2%)	50.5%
검진센터	8,980 (13.9%)	13,272 (13.1%)	19,894 (12.9%)	23,898 (11.5%)	28,135 (10.0%)	35,858 (10.1%)	27.4%
피부과	6,015 (9.3%)	9,579 (9.4%)	12,978 (8.4%)	17,224 (8.3%)	25,101 (9.0%)	29,945 (8.4%)	19.3%
정형외과	3,196 (5.0%)	4,975 (4.9%)	6,876 (4.4%)	9,643 (4.7%)	14,597 (5.2%)	19,211 (5.4%)	31.6%
산부인과	3,965 (6.2%)	5,656 (5.6%)	7,568 (4.9%)	10,905 (5.3%)	15,899 (5.7%)	19,039 (5.4%)	19.7%
안과	1,921 (3.0%)	4,507 (4.4%)	5,821 (3.8%)	7,933 (3.8%)	9,421 (3.4%)	14,618 (4.1%)	55.2%
일반외과	1,903 (3.0%)	2,793 (2.7%)	4,304 (2.8%)	6,530 (3.2%)	10,232 (3.7%)	12,465 (3.5%)	21.8%
이비인후과	2,484 (3.9%)	3,549 (3.5%)	5,080 (3.3%)	7,313 (3.5%)	10,069 (3.6%)	11,860 (3.3%)	17.8%
치과	2,032 (3.2%)	3,828 (3.8%)	5,220 (3.4%)	7,001 (3.4%)	8,878 (3.2%)	11,707 (3.3%)	31.9%
신경외과	1,674 (2.6%)	2,177 (2.1%)	3,053 (2.0%)	5,144 (2.5%)	7,897 (2.8%)	10,307 (2.9%)	30.5%
비뇨기과	1,760 (2.7%)	2,629 (2.6%)	4,027 (2.6%)	5,616 (2.7%)	7,906 (2.8%)	9,604 (2.7%)	21.5%
한방통합	1,897 (2.9%)	4,191 (4.1%)	9,793 (6.3%)	9,464 (4.6%)	9,554 (3.4%)	11,743 (3.3%)	22.9%
그외진료과	7,388 (11.5%)	16,096 (15.8%)	25,485 (16.5%)	34,496 (16.7%)	40,092 (14.3%)	53,431 (15.0%)	33.3%
계	64,464 (100%)	101,592 (100%)	154,816 (100%)	207,059 (100%)	280,309 (100%)	355,389 (100%)	26.8%

\* 내과통합: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11개 진료과)

\*\* 한방통합 : 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11개 진료과)

■ 지역별 외국인 환자

- 지역별 외국인 환자 현황은 서울이 154,816명으로 가장 유치인원이 많았으며 경기 지역이 그 뒤를 이어 39,990명으로 나타났음
  - 서울지역이 전체의 58.1%, 경기도 지역이 15.0%를 차지하여 의료관광의 지역불균형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소재 지역이 서울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 서울·경기·인천지역(상위 3개 지역)의 의료관광객 편중 현상은 지역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함
- 지역별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5,236명의 외래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77.4%로 나타남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경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이외 의료관광객 관광지 선택의 매력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표 2-7> 지역별 외국인 환자(2009-2014)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14년 증가율
서울특별시	36,896 (61.3%)	50,490 (61.7%)	77,858 (63.7%)	99,422 (62.3%)	133,428 (63.2%)	154,816 (58.1%)	16.0%
경기도	11,563 (19.2%)	10,913 (13.3%)	17,092 (14.0%)	19,347 (12.1%)	25,673 (12.2%)	39,990 (15.0%)	55.8%
인천광역시	4,400 (7.3%)	2,898 (3.5%)	4,004 (3.3%)	6,370 (4.0%)	10,432 (4.9%)	17,701 (6.6%)	69.7%
부산광역시	2,419 (4.0%)	4,106 (5.0%)	6,704 (5.5%)	9,177 (5.8%)	11,022 (5.2%)	13,717 (5.1%)	24.5%
대구광역시	2,816 (4.7%)	4,493 (5.5%)	5,494 (4.5%)	7,117 (4.5%)	7,298 (3.5%)	9,871 (3.7%)	35.3%
대전광역시	169 (0.3%)	1,693 (2.1%)	1,963 (1.6%)	5,371 (3.4%)	5,476 (2.6%)	7,047 (2.7%)	28.7%
제주특별자치도	223 (0.4%)	720 (0.9%)	740 (0.6%)	1,752 (1.1%)	2,952 (1.4%)	5,236 (2.0%)	77.4%
경상북도	126 (0.2%)	407 (0.5%)	517 (0.4%)	1,066 (0.7%)	1,561 (0.7%)	3,403 (1.3%)	118%
충청남도	5 (0%)	997 (1.2%)	1,367 (1.1%)	1,715 (1.1%)	2,936 (1.4%)	2,965 (1.1%)	1.0%
전라북도	695 (1.2%)	1,909 (2.3%)	2,104 (1.7%)	2,194 (1.4%)	2,228 (1.1%)	2,590 (1.0%)	16.2%
강원도	279 (0.5%)	567 (0.7%)	1,349 (1.1%)	1,498 (0.9%)	2,925 (1.4%)	2,523 (0.9%)	△13.7%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14년 증가율
충청북도	95 (0.2%)	303 (0.4%)	386 (0.3%)	491 (0.3%)	813 (0.4%)	2,333 (0.9%)	187%
광주광역시	274 (0.5%)	989 (1.2%)	1,118 (0.9%)	1,648 (1.0%)	1,900 (0.9%)	1,850 (0.7%)	△2.6%
울산광역시	43 (0.1%)	614 (0.8%)	782 (0.6%)	925 (0.6%)	1,086 (0.5%)	1,116 (0.4%)	2.8%
경상남도	122 (0.2%)	354 (0.4%)	556 (0.5%)	646 (0.4%)	749 (0.4%)	965 (0.4%)	28.8%
전라남도	76 (0.1%)	336 (0.4%)	263 (0.2%)	725 (0.5%)	739 (0.4%)	378 (0.1%)	△48.8%
계	60,201 (100%)	81,789 (100%)	122,297 (100%)	159,464 (100%)	211,218 (100%)	266,501 (100%)	26.2%

## 2.2 의료관광객의 지출규모

### 2.2.1 의료부문 지출

#### Ⅰ 의료관광객 진료수입

- 2014년도 의료관광객의 총 진료비 수입은 5,569억 원으로 나타나 2013년도 대비 41.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의료관광객 진료수입은 연평균 59.1%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8만원으로 전년대비 1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현황(2009-2014)

구분	총 진료수입 (단위 : 억원)				1인당 평균진료비 (단위 : 만원)			
	입원	외래	건강검진	전체	입원	외래	건강검진	전체
2009년	256	291		547	656	54		94
2010년	520	432	81	1,032	666	70	87	131
2011년	756	950	103	1,809	662	100	71	149
2012년	1,347	1,180	145	2,673	910	92	91	168
2013년	1,859	1,834	241	3,934	923	106	131	186
2014년	2,372	3,007	188	5,569	994	135	89	208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 Ⅱ 진료비 지출액별 의료관광객

- 진료비 구간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을 지출한 고액환자는 2014

년도 총 21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3년도 117명에 비하여 79.5%증가함

- 2014년도 실환자 수는 50만원 미만의 지출구간에 147,823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55.4%), 뒤를 이어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지출구간에 61,785명(23.2%)으로 나타남

<표 2-9> 진료비 구간별 외국인 환자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14년 증가율
1억원 이상	10 (0.0%)	21 (0.0%)	27 (0.0%)	82 (0.1%)	117 (0.1%)	210 (0.1%)	79.5
5천-1억미만	29 (0.1%)	77 (0.1%)	122 (0.1%)	232 (0.2%)	273 (0.1%)	532 (0.2%)	94.9
1천-5천미만	777 (1.3%)	1,634 (2.1%)	4,862 (4.0%)	4,473 (2.8%)	6,190 (2.9%)	8,872 (3.3%)	43.3
500-1천미만	1,225 (2.1%)	2,413 (3.1%)	3,735 (3.1%)	6,065 (3.8%)	9,083 (4.3%)	11,960 (4.5%)	31.7
100-500만미만	8,657 (14.9%)	16,453 (21.0%)	23,863 (19.7%)	38,353 (24.1%)	55,933 (26.5%)	61,785 (23.2%)	10.5
50-100만미만	6,656 (11.4%)	10,755 (13.7%)	20,049 (16.6%)	20,886 (13.1%)	39,061 (18.5%)	35,319 (13.3%)	△9.6
50만원 미만	40,818 (70.2%)	47,167 (60.1%)	68,337 (56.5%)	89,373 (56.1%)	100,561 (47.6%)	147,823 (55.4%)	47.0
계	58,172 100(%)	78,520 (100%)	120,995 (100%)	159,464 (100%)	211,218 (100%)	266,501 (100%)	26.2

\* '09-'11년 진료비가 있는 환자 내의 비중임

### Ⅰ 주요 국적별 진료수입

- 주요 국적별 진료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 환자가 지출한 총 진료비는 1,403억 원으로 전체 진료수입의 25.2%를 차지함
  - 총 진료수입 규모로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그 뒤를 이어 러시아 1,111억 원, 미국 563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평균 진료비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1인당 평균진료비가 1,537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자흐스탄이 413억 원으로 2번째로 높은 평균진료비를 보여줌
- 실질적으로 중국인 환자의 진료비 지출규모가 가장 크나 이는 성형, 피부과 시술과 같은 경증 수술·시술의 비율이 높고 중동권의 경우 중증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현황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표 2-10> 국적별 평균 진료비 지출 현황(2013~2014년도)

(단위 : 억원, 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14년 증가율 (총진료수입)
	총 진료수입	1인당 평균진료비	총 진료수입 (비중)	1인당 평균진료비	
중국	1,016	181	1,403 (25.2%)	177	38.1
러시아	879	366	1,111 (20.0%)	349	26.4
미국	508	155	563 (10.1%)	156	10.8
아랍에미레이트	204	1,771	405 (7.3%)	1,537	98.5
카자흐스탄	132	456	332 (6.0%)	413	151.5
몽골	306	254	264 (4.7%)	206	△13.7
일본	167	99	131 (2.3%)	91	△21.6
베트남	55	184	46 (0.8%)	122	△16.4
인도네시아	21	193	36 (0.6%)	222	71.4
우즈베키스탄	19	136	25 (0.4%)	131	31.6
사우디아라비아	19	146	20 (0.4%)	171	5.3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 2.2.2 관광부문 지출

### ■ 의료관광객 활동 분야별 지출금액<sup>6)</sup>

- 한국관광공사(2014)에서 총 1,507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2014년 10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제주 지역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의료, 숙박, 쇼핑, 교통, 식/음료, 오락/문화/운동, 기타 지출액을 포함한 의료관광객 평균지출금액은 직접 예약한 의료관광객의 경우 US\$8,315.5로 나타났으며 의료관광 유치업체(에이전시)를 경유한 경우 US\$7,046로 나타남

6) 의료비 지출 추정은 한국관광공사(2014)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의 자료는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의 차이로 인해 추정액의 차이가 있음

<표 2-11> 의료관광객 평균지출금액

(단위 : US\$)

	직접예약/기타	에이전시	전체 평균
의료비	4,270.3	3,112.1	3691.2
에이전시 지급비	-	654.5	-
숙박비	1,606	730	1168
쇼핑비	1,808	982	1395
교통비	205	160	182.5
식/음료비	393	361	377
오락/문화/운동	565	270	417.5
기타	511	992	751.5
평균지출금액	8,315	7,046	7680.5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4). 의료관광 만족도 및 국내의료기관 ‘관광’서비스 부문 수용태세 조사. 재구성.

(단위 : US\$)



[그림 2-4] 의료관광객 활동분야별 평균지출 금액

- 의료관광객의 지출비용은 의료비가 가장 큰 지출비용을 차지했으며 쇼핑비, 숙박비가 뒤를 이어서 큰 지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11> 참조)
-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오락/문화/운동 등 웰니스 연관 항목에서 US\$417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출액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 3 의료관광객 활동 및 행태

#### Ⅰ 의료서비스(진료/치료/시술)외 의료관광객 활동

- 한국관광공사(2014)에 의하면 의료관광객의 의료행위 이외의 관광활동으로는 쇼핑, 문화(한류)체험, 역사유적지방문, 테마파크, 놀이시설 등의 방문, 서울이외의 지역 방문 등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쇼핑(25.2%)’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문화체험과 자연 및 풍경감상의 순으로 나타남
- 의료관광객이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7.4%를 차지하여 중증의료관광객의 경우 여타 다른 관광활동을 하지 않고 의료행위만을 위해 입국함을 추측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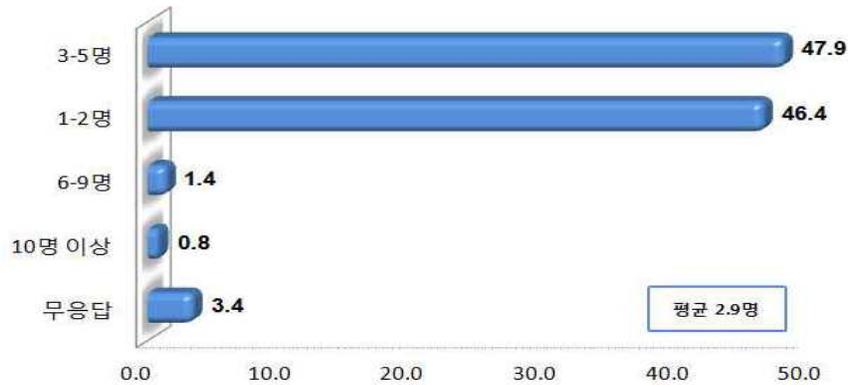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2015). 의료관광만족도 및 국내 의료기관 ‘관광’ 서비스 부문 수용태세 조사

[그림 2-5] 의료관광객의 의료서비스이외의 활동

#### Ⅰ 의료관광객 동반자

- 한국관광공사(2014)에 의하면 의료관광객의 방한 시 동반자가 있는 경우는 56.8%, 동반자가 없는 경우는 37.2%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본인을 포함한 평균 동반자의 수는 2.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동반자의 수는 3~5명이 4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명이 46.4%로 나타남
  - 의료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방한 시 동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관광객의 의료 활동 이외 동반자에 의한 관광소비활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자료: 한국관광공사(2014). 의료관광만족도 및 국내 의료기관·관광서비스 부문 수용태세 조사

[그림 2-6] 본인 포함 의료관광객의 동반자수

### Ⅰ 한국의료를 선택한 경우 의료서비스 선택 경로

- 의료서비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 환자(555명)의 한국 의료를 선택한 경로는 자가선택(73.2%), 여행사 등 에이전시 소개(15.5%), 정부 간 협약(10.5%), 기업지정계약(3.6%), 보험사 직불 계약(2.5%)순으로 집계됨
  - 국가별로 살펴보면 러시아 지역이 174명(84.1%)로 자가 선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동지역은 정부 간 협약에 의한 방문이 85.4%로 두드러지게 나타남
  - 따라서 중동지역 외래 관광객의 특성상 지출금액의 수준이 높고 중증 의료관광객의 비율이 높아 자가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표 2-12> 국적별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 경로

(단위 : 명, %)

구분	미국 (n=56)	일본 (n=28)	중국 (n=177)	러시아 (n=207)	몽골 (n=82)	동남아 (n=14)	중동 (n=41)	계 (n=555)
정부간 협약	17(30.4)	0(0.0)	4(3.2)	2(1.0)	0(0.0)	0(0.0)	35(85.4)	58(10.5)
기업 지정 계약	3(5.4)	0(0.0)	3(2.4)	7(3.4)	2(2.4)	4(28.6)	1(2.4)	20(3.6)
보험사 직불 계약	2(3.6)	2(7.1)	7(5.5)	0(0.0)	0(0.0)	1(7.1)	2(4.9)	14(2.5)
여행사 등 에이전시	9(16.1)	4(14.3)	32(25.2)	37(17.9)	4(4.9)	0(0.0)	0(0.0)	86(15.5)
자가선택	21(57.1)	22(78.6)	81(63.8)	174(84.1)	80(67.6)	9(64.3)	8(19.5)	406(73.2)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2013 International Patient Satisfaction Survey.

### Ⅰ 의료관광객 한국 의료정보 습득 경로

- 한국의료를 자가 선택한 외국인 환자의 경로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족과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한 경우가 260건으로 전체의 64.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이 170건으로 26.4%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관광객(FIT)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관광객은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거나 잘 알고 있는 ‘가족 및 지인의 추천’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인터넷 검색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국가에서는 가족 및 지인 추천으로 한국 의료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12년도에도 지인을 통해 의료관광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57.6%로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49.8%로 나타났으며 의료관광 정보의 경우 구전효과가 강하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표 2-13> 국적별 의료관광 정보 습득 경로

(단위 : 명, %)

구분	미국 (n=32)	일본 (n=22)	중국 (n=81)	러시아 (n=174)	몽골 (n=80)	동남아 (n=9)	중동 (n=8)	계 (n=406)
가족 및 지인 추천	10(31.3)	4(18.2)	40(49.4)	132(75.9)	64(80.0)	4(44.4)	6(75.0)	260(64.0)
인터넷 검색	17(53.1)	16(72.7)	15(18.5)	49(28.2)	6(7.5)	3(33.3)	1(12.5)	170(26.4)
신문, 잡지, 브로슈어 등	0(0.0)	0(0.0)	16(19.8)	0(0.0)	4(5.0)	0(0.0)	0(0.0)	20(4.9)
TV, 라디오	0(0.0)	2(9.1)	3(3.7)	3(1.7)	3(3.8)	0(0.0)	1(12.5)	12(3.0)
공항	0(0.0)	0(0.0)	1(1.2)	1(0.6)	1(1.3)	1(11.1)	0(0.0)	4(1.0)
기타	5(15.6)	0(0.0)	8(9.9)	9(5.2)	10(12.5)	1(11.1)	0(0.0)	33(8.1)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2013 International Patient Satisfaction Survey.

### Ⅰ 의료관광 유치업체 이용 비율

-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여행사 등 유치업체를 통해 방문한 환자는 전체의 26.8%이며(219명), 국적별로는 러시아 환자(43.3%)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몽골(28.3%), 동남아시아(25.7%), 중국(25.4%), 일본(15.9%)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4> 국적별 유치업체 이용

(단위 : %)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	중동	계
유치업체 이용	10.7	15.9	25.4	43.3	28.3	25.7	15.4	100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2013 International Patient Satisfaction Survey.

### Ⅰ 한국방문의 주된 목적별 한국의료 만족도

- 한국 방문의 주된 목적별 한국 의료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의료서비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환자는 평균 89.7점의 만족도를 보임
- 의료서비스 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평균 86.0의 만

족도를 보였음

- 특히 미군, 직업에 의한 일시적 체류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평균 90점으로 만족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가 한국의료로 경험한 경우에는 83.5%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표 2-15> 한국방문의 주된 목적별 한국의료 만족도

(단위 : %)

구분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 외 목적					
		전체	관광	비즈니스	친지방문	미군, 직업에 의한 일시적 체류	기타 목적
한국의료 만족도	89.3	86.0	84.6	83.5	84.4	90.0	85.6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2013 International Patient Satisfaction Survey.

## 4 의료관광 관련 제도 및 규제현황

### 4.1 의료관광 관련 주요 행정조직<sup>7)</sup>

#### Ⅰ 중앙정부

- 의료관광은 국무총리실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료관광과 관련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의료관광 이미지 등에 대한 해외홍보, 국제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외국인 방문객 안내 등의 편의제공 등을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관광정책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의료콘텐츠와 품질관리,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관리,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대책 마련 담당
- 법무부와 외교부는 해외공관을 통한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외국인의 한국 방문 시 방문비자의 발급 및 관리를 통한 외국인 출입국 업무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산업단지의 건설 및 지역 경제권 육성 사업을 전개함
- 기획재정부는 관련분야의 보험상품 관리, 금융편의 제공 및 세입관리를 담당하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16> 정부부처의 의료관광 추진 부처

정책수립 정부부처	정책실행기관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해외홍보 마케팅 외국인 방문객 안내 및 편의제공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률 및 제도정비 의료관광 국내기반 조성지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관리 의료분야 국제교류 및 홍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비자제도, 외국인 출입국 관리
외교부	재외공관	외국인 비자 발급
기획재정부	-	예산 수립 및 세제관리 금융 편의 제공
산업통상지원부	-	국내 의료산업 육성
고용노동부	-	산업인력 양성, 국가 자격증 제도 관리
교육부	-	전문인력 육성

자료: 최남섭(2012).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최남섭(2012).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박사학위 논문의 재구성.

## I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별 의료관광 육성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의료관광 정책을 수립함
- 부산광역시
  - 2007년 5월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를 설립하고 2009년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개최함
  - 부산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 및 회의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실시
  - 매년 2회씩 해외의료관광시장 설명회와 팸투어를 실시
- 대구광역시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중국, 미국 등을 타깃 국가로 하여 의료관광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 대구의료관광발전 협의회를 발족
  - 홍보마케팅 관련 의료관광마케팅지원센터 및 대구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를 운영
  -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대구조성'사업추진
- 인천광역시
  - 2011년 인천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인천의료관광재단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컨퍼런스, 박람회 등 국내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함과 동시에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설명회, 팸투어 등을 실시함
- 광주광역시
  - 2011년에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를 발족시켜 민간중심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6개 언어로 구성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의료관광센터와 의료관광 홍보관을 운영
- 대전광역시
  - 대전마케팅공사 내에 의료관광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대전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함
  - 몽골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4.2 의료관광 관련 법령

###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법(의료법 제27조의 2)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3가지 여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 가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본금 보유
  - 그밖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료기관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음(의료법 시행규칙 제 19조 5항)
  -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초과불가(0.05%미만의 외국인 환자 유치)
  -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44개의 병원이 존재함
- 이와 같은 유치제한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 외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시행령)

- [정의] 관광진흥법 제12조 2(의료관광 활성화)관련 조항에서는 의료관광에 대한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유치기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8조의 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관련 조항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관련 기관을 명시하고 있음
  -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그 밖에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관광 관련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전문인력 양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8조의 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관련 조항에서는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관련 지원 및 편의서비스, 마케팅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 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4.3 의료관광 지원제도

#### Ⅰ 의료기관 국제인증제도<sup>8)</sup>

- 의료기관에 대한 국제인증제는 의료기술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 제공 및 환자의 안전보장을 담보해주는 병원평가제도
- 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지불보증이나 환자 알선 및 소개 등을 하는 의료관광 에이전시 또는 외국인보험회사 등의 업무제휴 조건에 포함됨
- 국제인증제(ISO9001, ISO14000, JCI 등)와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가 있음

<표 2-17> 의료관광 관련 의료기관의 주요인증제도

주요인증제	주요내용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로서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에서 대표적인 의료기관인증제로 인정받고 있음</li> <li>- 의료관광객의 해외 의료기관 선택 시 중요한 지표가 됨</li> <li>- JCI인증은 3년 주기로 평가되며, 환자진료부문과 병원관리부문의 총 1,03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됨</li> <li>- JCI인증 비용은 12~3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국내 많은 중소규모의 병원들이 비용 부담의 문제로 인증의 어려움을 갖고 있음</li> </ul>
국내 의료기관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CI인증의 대안으로서 2011년 1월 국내 의료기관평가제를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함.</li> <li>- 보건복지부가 국제수준(ISQua)의 인증기준에 따라 병원서비스 및 시설을 평가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교부해주는 제도</li> <li>- 인증비용은 조사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1,500~5,000만 원 정도</li> </ul>

8) 서울특별시(2015). 서울의료관광 실태분석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재구성.

## ■ 메디컬(M) 비자제도

-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009년 5월 11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M(메디컬)비자발급을 허용하였음
- 기존의 단기 종합비자(C3,90일)와 일반비자(G1, 1년)에 치료목적의 입국을 의미하는 M표기를 더해 C3(M, 90일), G1(M, 1년)등 2종류를 신설함
- 메디컬 비자는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된 자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됨
- 메디컬 비자의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진료 기록, 국내에서 치료비를 지불 할 수 있는 재산 증명, 국내 병원의 예약확인증 등을 요구함
- 입국 절차와 제도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제1차 관광진흥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같은 해 9월 1일부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부유층이 쉽게 입국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발급대상을 확대함
-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전자비자 발급대상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확대함
  - 전자비자제도는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교수, 연구원 등 우수인재에 한하여 시행됨
-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전자비자를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관광객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함

## ■ 의료광고법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2014)에 따르면 의료광고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 소비자인 환자를 자기 병원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의료인 내지 의료기관·의료법인보다 시설 또는 의료수준이 우수하다는 것을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함
- 동 기준에서는 의료기기 광고, 의약품(처방기술인 탕, 산, 환, 제 제외)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명칭 및 기기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인 경우 불승인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함
  - 다만, 의료기관 내부 시설 사진 등에 부분적으로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진료방법의 장점을 소개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명칭을 언급하는 것은 의료기기 광고로 보지 않음
  - 공익적 광고(건강강좌 개최 등, 예방접종 안내, 손씻기 홍보), 의료기관 개설예정

안내 등과 같이 환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음

- 의료관광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 56조 1항 및 2항 제10호에 의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되며,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음
  - 유치의료기관에게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되고 해외광고만 허용되며, 유치업자에게는 국내광고와 국외광고가 모두 허용되지 않음
-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관광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대상이 되는 해당 국가의 의료광고 관련 법규에 따라 유치 의료광고를 진행할 수 있음

#### 4.4 지원제도 개선점

##### ■ 의료관광 관계 법률과 정책 담당 주체의 일원화

- 의료관광을 담당하는 법체가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으로 분산되어 있고 정책 담당 주체도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적인 관계 법률 제정이 필요함
- 관련 용어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과 ‘의료관광사업’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어 단일용어로 정립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자격과 범위의 문제<sup>9)</sup>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업법 제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모순적인 예외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업무 범위와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관련하여 외국인환자 또는 의료기관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규제기준의 명료화

- 의료법 제33조 3항의 의료기관 개설주체와 의료법 제56조 1항의 의료광고 주체가

9) 최남섭(2012). 외국인 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법제도적 개선방안. 재구성.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의료법 체계에도 부합함
  - 의료인단체 및 공인학회는 의료광고의 주체로 인정되나 의료기관 부속시설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네트워크 의료기관 브랜드 자체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만을 강조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이 최소 한 개 이상 존재하며 광고주체가 되어야 함<sup>10)</sup>
- 외국인 환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의료관광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는 불가피함
- 의료법 제 56조 2항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광고의 경우 국내·국외의 지역적 구분은 무색함

#### ■ 의료관광산업의 수출산업 인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제 1항에서는 수출산업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지 시설업, 관광 편의시설 등 7개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의료관광산업은 수출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상에 의료관광산업을 관광산업의 종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 외국인 환자 유치광고 명료화

- 현 의료관광 관련 법규에 의하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되며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행할 수 없음
- 유치 의료기관에게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불허하며, 유치업자들에게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광고를 국내·외에서 금지하고 있음
- 관련 조항의 개선을 통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관광 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0) 광명섭(2010).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 5 소 결

### ■ 의료관광분야 정책적 지원 및 육성 필요

- 우리나라 의료관광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 의료관광분야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볼 때 의료관광분야에 대한 관광의 시각에서의 정책적 지원 및 집중적·효율적 의료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함

### ■ 의료관광분야의 범위와 명확한 정의 설정 필요

- 의료관광 산업의 정위와 범위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큼
  - 첫째, 의료관광 산업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 구축이 어려움
  - 둘째, 의료관광산업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발생시킴
- 따라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정책적 차원에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해야 함

### ■ 의료관광객의 의료지출 뿐만 아니라 관광 소비 항목을 구체화하여 통합통계자료 발행 필요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의료관광 보고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의료기관의 의료관광객 유치건수, 의료비 지출액, 진료과목, 체류일수)중심의 통계자료로 발간되고 있음
- 따라서 의료관광객이 지출한 관광분야의 소비액, 소비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통합통계자료의 발행이 필요함
- 현재 제한적 범위의 년 단위로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세분화하여 월간 단위 통계 자료 생산이 필요함

### ■ 의료관광산업의 명확한 산업분류체계 확립 필요

- 의료관광은 의료와 관광의 새로운 융복합산업으로서 전통적인 의료산업과 관광산업

이 새로운 가치사슬을 가진 신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재 의료관광유치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명확한 산업 분류 기준이 애매하여 전적으로 정책담당자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
- 의료관광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수산업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적 단계에서의 산업분류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 의료관광 통합 거버넌스 구축

- 현재 의료관광 분야는 업무별 담당 부처가 분리되어 있으며 용어 또한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으로 이원화 되어있음
- 신규사업 추진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운영효율성 저하 및 실행 지연 등의 문제점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업무법령체계의 통합 및 일원화가 요구됨
- 따라서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각 기관의 주요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의료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Ⅲ. 의료관광의 개념 및 영역설정

1. 의료관광의 개념 및 정의
2. 의료관광의 유형
3. 의료관광의 영역 및 관련 사업체



# 1 의료관광의 개념 및 정의

## 1.1 의료관광 개념에 대한 사례

### ■ 의료관광 관련 용어사용의 불일치

- 의료관광객을 관광업계에서는 관광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의료업계에서는 환자로 분류하고 있어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용어 사용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기존 의료관광에 대한 용어는 매우 다양하며, 예를들어 의료관광(Medical tourism), 보건관광(Health tourism), 웰빙관광(well-being tourism, Wellness tourism) 등이 있음
- ‘의료관광’은 ‘의료’와 ‘관광’이 합쳐진 단어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의료는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이나 그러한 일’을 뜻하며, ‘관광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것’을 의미함(나현아, 2014)
  - 하지만 의료관광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의료’와 ‘관광’의 개념의 단순 결합으로 보기에는 의료관광을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음
- 의료관광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정책담당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와 관광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관광 분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필요함

### ■ 의료관광(Medical tourism)<sup>11)</sup>

- 전통적인 의미로 의료관광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면서 동시에 수술이나 기타 의료서비스 또는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함
-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행위 자체에 비중을 둔, 치료목적의 관광형태로 해석할 수 있음
-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문화 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형

11) 문화체육관광부(2012). 의료관광통계산출 재구성.

태의 서비스 산업이며, 사용자는 의료와 관광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동시에 이루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서비스에 비중을 둔 치료 목적의 관광 형태로 볼 수 있음

-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휴양시설을 갖춘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지역의 관광지에서 활성화되어 있음
- 의료관광은 질병 치료, 건강증진, 미용 등의 의료서비스에 관광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임

### ■ 건강관광(Health tourism)

- 건강관광(Health tourism)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International Union of Tourist Organization(IUOTO, 1973)에 의해서임
- IUOTO는 건강관광을 한 국가 내의 자연환경(특히 기후와 물)을 이용하여 건강시설을 제공하는 관광으로 인간의 재활력, 정신, 육체, 감성을 위하여 국부적인 환경을 벗어난 상황에서 레저와 휴양을 함께 추구하며 웰니스(Wellness)와 헬스케어(Healthcare)를 결합하는 기능을 하는 관광의 유형이라 정의하고 있음
-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은 넓은 의미의 건강관광(Health tourism)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됨. 건강관광은 몸과 마음에 관한 개인의 웰빙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회복하기 위해 자기 거주지를 떠나는 조직적인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건강관광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자국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조직적인 여행인 의료관광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 건강관광은 ‘보건관광’, ‘보양관광’ 등으로 표현되며, 건강 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건강 관련 관광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유명희, 2010)

### ■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

- 웰니스(Wellness)란 신체적인 건강에 국한되는 협의적 개념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을 건강으로서 웰니스의 3요소인 운동, 영양, 휴양을 통합하여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1961년 미국 던(Dunn)의 저서 “High Level Wellness”에서 최초로 사용된 개념으로 웰니스를 개개인 최적의 건강을 향하여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생활 양식을 변화하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혹은 최적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생활양식

의 변화를 돕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

- 보양, 의료, 미용 등 건강증진 관광, 자연 휴양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관광, 전통음식 시식·조리를 포함한 음식관광, 전통문화·농어촌 및 사찰체험을 통한 체험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은 일반적인 치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사전에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개인에게 전문적인 기술력과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 호텔에 숙박하면서 물리적 피트니스, 미용관리 및 건강영양, 다이어트 및 긴장완화, 휴식 및 지적 활동, 교육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함<sup>12)</sup>

### ■ 「관광진흥법상」의 의료관광

-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의료관광을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 활동 등의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로 보고 의료와 관광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음
- 국내 「관광진흥법」 제 12조 2항에 따르면 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함
  - 「관광진흥법」에서는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의료법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2013)에서는 의료관광을 본인 혹은 의료진의 판단에 의거하여 심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거주국의 국경을 벗어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타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모든 활동 또는 이를 돕기 위한 동반자의 모든 활동
- 국민의 국내 의료관광이란 국민이 국내에서 행하는 의료관광을 말하고 있으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의료관광’ 또는 ‘의료관광객’이란 외국인에 의한 국내에서의 의료관광을 의미하고 있음

### ■ UNWTO IRTS2008 정의

- UNWTO는 관광통계에 대한 국제권고안 2008(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12) Muller& Lanz Kaufmann(2001). Wellness tourism: Market analysis of a special health tourism segment and implications for the hotel industry.

Tourism Statistics 2008: 이하 IRTS2008)에서 관광의 주요목적은 ‘만약 그 관광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목적(3.10항)’이라고 정의하면서 관광의 목적이 ‘그 여행이 관광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여행객이 관광객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3.11항)’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 IRTS2008에서는 개인의 관광목적 중 ‘건강 및 치료’목적의 관광에는 병원, 클리닉, 회복환자 요양소 등으로의 방문이 포함되며, 더 일반적으로는 보건 및 사회시설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 해수치료 및 스파 리조트 방문, 그리고 의학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한 성형수술, 의학적 권고에 기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 등도 포함하고 있음. 또한 1년 이상의 거주를 필요로 하는 장기치료는 관광 여행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치료만을 포함(1.4항)하고 있음
  - 따라서 IRT2008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순 다이어트를 위한 피트니스, 웰니스(Wellness)호텔 등 웰빙(wellbeing)에 특화된 시설의 방문 등은 ‘휴가, 여가 및 오락’목적의 방문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료관광에서 제외됨

## ■ 기타 문헌

- Goodrich & Goodrich(1987)는 의료관광을 건강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에게 관광활동과 결합하여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Medlick(1996)은 의료관광을 여러가지 병에 대한 치료에서부터 건강과 휴양프로그램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장소를 방문 및 여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 Henderson(2004)은 의료관광을 의료관광, 성형수술, 온천 및 대안적 치료법을 포함한 관광형태로 정의함
- Gupta(2004)는 건강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에게 관광활동과 결합하여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의 유형으로 정의함
- 국내에서 유지윤(2011)은 의료여행객(Medical Traveler)와 의료관광객(Medical tourist)로 구분하여 의료관광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의료여행객은 주로 비용적·경제적인 이유에서(주로 비용을 의미함)중증 의료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이동을 하는 관광객을 의미함
  - 의료관광객은 관광과 의료의 겸 목적으로 가지고 국제적인 이동을 하는 사람과 관광을 주목적으로 국제적인 이동을 하였지만 방문국의 의료적인 시술 및 처치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의료를 주목적으로 국제적인 이동을 하였지만 의료적인 시술 및 처치이후에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정의함

-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의료관광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합의된 기준 혹은 도출된 합의점은 부재한 상황임

<표 3-1> 의료관광의 정의

연구자	의료관광의 정의
제서윤, 공순구 (2015)	의료서비스와 관광이라는 의미로 의료에 관광을 접목시킨 것. 선진국 수준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으로 자신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환자가 치료를 위해 자국의 의료시스템 대신에 국경을 넘어 해외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관광객은 의료와 관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고자 관광을 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의료행위 자체에 비중을 둔 치료목적의 관광형태임
장심, 장혜정(2015)	의료서비스·휴양·레저·문화 활동을 포함하는 관광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관광형태를 의미. 의료에 관광을 접목한 것으로서 환자가 진료, 휴양과 관광활동을 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여행하는 것까지 포함
유지운(2011)	Medical Traveler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종종 의료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Medical Tourist는 관광과 의료의 겸 목적으로 가지고 국제적인 이동을 하는 사람과 관광을 주목적으로 국제적인 이동을 하였지만 방문국의 의료적인 시술 및 처치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의료를 주목적으로 국제적인 이동을 하였지만 의료적인 시술 및 처치이후에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정의함
Eman(2011)	건강이나 웰빙의 넓은 범위에서의 여행으로 방문지에서 여가 레크리에이션, 문화 활동과 함께 건강관리, 건강검진, 수술, 진료, 성형수술, 미용, 치료 및 치유 재활치료, 요양 등을 포함함
임춘례(2011)	건강증진, 치료, 건강회복, 미용 등을 목적으로 타지로 떠나는 여행과 관광 또는 친지방문의 여행을 결정하고 현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모든 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가 결합된 여행형태
이희열(2011)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요양 등의 목적으로 집을 떠나 국내 또는 국외로 이동하여 치료 및 치유의 목적과 함께 주변관광, 레저, 문화 등의 관광활동을 동시에 체험하는 활동
김미경(2010)	건강을 위한 검진 및 치료와 휴양 및 여가, 문화체험 등이 연계된 다목적 관광을 일컫는 용어로,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략산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 트렌드. 보건관광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건강증진 및 치료와 관광활동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특수목적 관광
김기홍(2010)	의료에 관광을 접목한 것으로서 환자가 진료, 휴양과 관광활동을 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진료 받기 위해 여행하는 것까지 포함
유용재, 최화열, 이문규 (2010)	질병의 예방과 건강치료, 또는 육체적 아름다움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장소를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것
Reddy, York & Brannon(2010)	심장수술, 성형수술, 치아관리, 온천 및 마사지요법 등 헬스관광과 웰니스 관광의 개념도 함께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건강 및 웰니스를 위해 국외로 여행하는 행위

연구자	의료관광의 정의
임현숙(2010)	의료관광은 건강 및 치료를 목적으로 타국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치료 기간 동안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해 관광활동을 병행 하는 것
소현정(2010)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의료와 관광활동의 접목으로 타 지역에서 의료 및 건강예방과 요양, 휴양 그리고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
홍현아 외(2007)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혹은 육체적, 정신적 아름다움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이해집단이 선택하는 관광의 유형
조구현(2006)	건강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에게 관광활동과 결합하여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의 유형
황여임(2006)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혹은 육체적, 정신적 아름다움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이익집단이 선택하는 관광의 유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우수한 보건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산업으로서 외국인 유치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는 사업
English et al.(2005)	환자가 진료, 휴양과 관광활동을 병행하는 것뿐 아니라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진료받기 위한 여행
Henderson(2004)	의료관광, 성형수술, 온천 및 대안적 치료법을 포함한 관광형태
Gupta(2004)	건강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에게 관광활동과 결합하여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의 유형
손대현·김정은(2001)	관광목적지를 포함한 건강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서비스프로그램
Medlick(1996)	여러가지 병에 대한 치료에서부터 건강과 휴양프로그램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장소를 방문 및 여행하는 활동
Goodrish & Goodrish(1987)	건강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에게 관광활동과 결합하여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관광활동

## 1.2 의료관광의 정의

### Ⅰ 의료관광의 정의

- ‘의료관광’은 치료 및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의료관광객과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관광활동을 병행하여 거주국의 국경을 벗어나 1년의 미만의 여행을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
  - 방문객의 활동은 의료와 관광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와 관광활동을 병행함
  - 의료관광객이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는 중증의료형, 경증의료형, 뷰티·웰니스의료 연계형의 치료, 수술 또는 시술을 의미함
  - 의료관광객의 관광활동은 쇼핑, 숙박, 교통, 식/음료, 오락/문화/운동, 기타 여가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임
  - ‘의료관광객’은 의료관광을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의미함

## ■ 의료관광업의 정의

- ‘의료관광사업’은 광의로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와 관광의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등을 위한 시설 또는 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 의료관광사업의 정의는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 의료관광객을 알선하고자 하는 유치업자, 의료관광 정보제공업, 보험업, 의료관광 관련 제조업, 뷰티·웰니스 업체를 포함하고 관광 분야에서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등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총칭함
- ‘의료관광산업’은 의료관광 관련 사업체의 집합을 의미함

## 2 의료관광의 유형

### 2.1 의료관광객의 목적에 따른 유형분류

- 의료관광의 유형분류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의료관광객의 치료목적, 소비자 요구, 방문목적별 등의 기준으로 분류한 유형과 공급의 측면에서 의료관광상품, 제공서비스 등의 기준으로 분류한 유형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음

#### ■ 의료관광의 치료목적에 따른 유형

- Smith & Puczko(2009)는 크게 보건관광의 유형을 최근에 등장한 웰니스 관광과 의료관광으로 구분하고 상품 및 시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함
- 관광객의 치료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강관광 상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건강관광의 하위개념으로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을 구분하고 웰니스 관광을 보건관광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며 의학 또는 치료의 범위는 포함되지 않는 관점으로 접근하였음
- 의료적 치료와 웰니스의 정도에 따라 건강관광의 유형을 기치료(Holistic), 레저형 관광(Leisure and Recreation), 웰빙형 의료서비스(medical wellness), 테라피형 의료서비스(Medical therapeutic), 수술형 의료서비스(Medical surgical)로 구분하고 해당 그룹에 속하는 상품군과 해당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관련 시설을 제시하였음

<표 3-2> 관광객의 치료목적에 따른 의료관광유형 분류

건강관광(Type of health tourism) 유형				
웰니스관광(Wellness)		의료관광(Medical)		
기치료	레저형 관광	웰빙형의료서비스	테라피형의료서비스	수술형의료서비스
영성치료	미용	치료레크레이션	재활치료(질병관련)	성형수술
요가, 명상	스포츠 치료	재활치료	치유요법, 회복서비스	치과진료
뉴에이지음악치료	마사지	직업병치료		기타수술
		해수요법		
		식이요법, 해독요법		

Ⅰ 의료관광의 방문 목적별 유형

- 의료관광객의 방문 목적별 순수치료목적, 순수치료목적 중 응급환자, 치료와 관광목적, 비즈니스와 치료목적, 간호목적의 환자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순수치료목적의 환자들은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세계 각국 부유층의 이용도가 높음
- 치료와 관광의 동시목적의 의료관광객은 관광과 휴양이 동시에 발달한 지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면 메디컬 스파 등 간단한 치료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임

<표 3-3> 의료관광 방문 목적별 의료관광 유형

방문목적	주요특징
순수치료목적	특정 병원 및 의료진을 선택하여 입국
순수치료목적 입국자중 응급환자	다른 치료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응급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관광목적	간단한 치료+관광 쾌적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휴식 추구자
비즈니스+치료목적	출장/사업차 방문 후 체류국 의료서비스 정보를 알고 치료를 겸한 후 귀국함
간호 목적의 환자 가족	치료받는 가족 구성원의 보살핌을 우선 목적으로 하나 현지관광도 겸함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2). 한국의료관광 총람.

Ⅰ 의료서비스 유형이나 의료관광객의 치료목적에 따른 유형

- 고태규·이황·김길래(2010)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과 고객의 치료목적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ormany(2008)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대수술상품, 소수술상품, 성형수술상품, 건강진단상품, 대체의학상품, 라이프스타일 웰빙상품으로 구분함
  - 하동현(2009)는 질병치료 관광상품, 미용성형의료 관광상품, 휴양의료 관광상품, 전통의료 관광상품으로 구분함
- 이를 종합하여 5가지의 상품 유형(수술형 의료관광상품, 성형 의료관광상품, 웰빙형 의료관광상품, 대체의학 의료관광상품, 건강진단 의료관광 상품)으로 구분하고 특징과 세부 의료상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4>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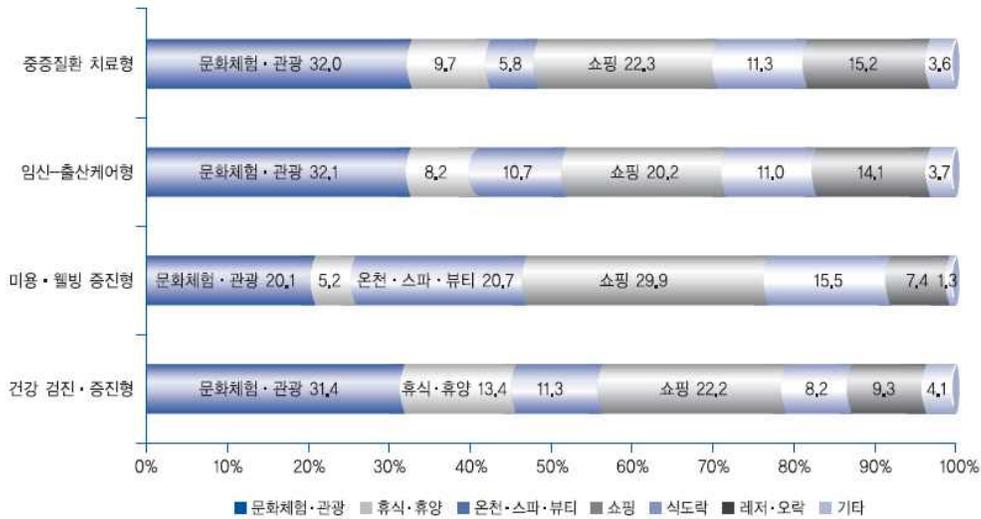
구분	핵심의료상품	세부의료상품
수술형 의료관광상품	정형외과 수술	- 고관절 교체 - 무릎관절 교체 - 고관절리서피싱
	척추수술	- 척추관절 융합수술 - 척추디스크 교체수술
	(제한적)심장 수술	- 혈관성형수술 - 심장진단수술
	부인과수술	- 부분적 자궁절제술 - 완전자궁절제술 - 확대자궁절제술 - 좌우양방난관/ 난소 절제술
	일반외과수술	- 혈관 수술 - 위장관 수술 - 신장과 비뇨기과적 수술 - 귀,코, 목 수술 - 쓸개제거술 - 헤르니아 재건술 - 백내장수술 - 라식수술 - 치질제거술 - 내부레이저정맥수술
	기타의료시술	- 비만수술 - 인공수정시술 - 종양(암)수술 - 장기이식수술 - 줄기세포치료 - 성전환술 - 약물중독 치료
	치과치료	- 치아건강관리 - 미용치과진료(치관, 본딩, 베니어, 치아미백) - 치아임플란트와 브리지 - 치아뿌리관수술 - 발치 - 기타 클리닉, 필링, 엑스레이 등 치과서비스
성형 의료관광상품	성형수술	- 얼굴성형수술(안면미용, 눈꺼풀, 코성형, 이마부위미용성형, 귀성형) - 체형수술(지방흡입술, 뱃살성형, 유방확대술, 유방미용성형, 허벅지·엉덩이·하체 리프트)
웰빙형 의료관광상품	리조트, 스파, 뷰티샵 활용 관광	- 스파관광 - 여가관광 - 해수관광 - 기치료관광 - 요가와 명상관광 - 종교관광

구분	핵심의료상품	세부의료상품
대체의학 의료관광상품	동양의학	- 한의학 - 아유르베다 치료법(특정 음식, 운동(요가), 약, 마사지 등) - 핀치카르마 치료법(음식과 허브치료법) - 산림치유
건강진단 의료관광상품	검진 프로그램	- 종합검진 프로그램 - 뇌 정밀 종합검진 - 척추 정밀 종합검진 - 흉부 정밀 종합검진 - 심장 정밀 종합검진 - 부인암 정밀 종합검진 - 비뇨기계 정밀 종합검진

자료: 고태규·이황·김길태(2010). 의료관광상품론. 연구자 재구성.

### ■ 의료관광객 환자 질환의 양태에 따른 분류

- 보건산업진흥원(2013)에서는 외국인 환자군을 질환의 양태에 따라 4환자군으로 분류하였음
  - 유형 I: 중증질환 치료형(암, 뇌혈관·심장질환, 척추·관절질환)
  - 유형 II: 임신-출산 케어형(난임, 임신, 출산, 산후조리)
  - 유형 III: 건강 검진·증진형(검진센터)
  - 유형 IV: 미용·웰빙 증진형(미용성형, 치과, 안과, 한의과)
- 각 환자군 별 표준형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을 시도하였으며 의료관광객 전용 의료서비스 및 종합 컨시어지 서비스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의료관광객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진료 외 활동에 있어서 고유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환자군별 평균연령은 중증질환 치료형(46.6세), 건강 검진·증진형(42.6세), 미용·웰빙 증진형(36.9세), 임신·출산 케어형(32.3세)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분포는 중증질환 치료형이 가장 넓게 분포함
  - 국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러시아·몽골·미국 국적에서는 중증질환 치료형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일본·중국 국적에서는 미용·웰빙 증진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의료관광객의 주된 진료 외 활동은 문화체험, 관광, 쇼핑, 온천·스파·뷰티, 레저·오락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환자군에 따라 각기 다른 진료 외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보건산업진흥원(2013).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효과 분석

[그림 3-1] 외국인환자군별 진료외 활동 구성비

## 2.2 의료관광상품 유형별 분류

### Ⅰ 의료관광객의 소비자 요구에 따른 유형

○ Joan C. Henderson(2004)은 보건의료관광을(Healthcare Tourism)을 비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관광(Medical tourism), 성형수술(Cosmetic Surgery), 온천 및 대체요법(Spa and Alternative Therapies)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의료관광(Medical tourism):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로 건강검진, 암수술, 심장수술, 골수이식, 장기이식과 같은 의료서비스 유형을 말함
- 성형수술(Cosmetic Surgery): 가슴확대술, 얼굴 주름살 제거 시술 등을 말함
- 온천 및 대체요법(Spa and Alternative Therapies): 침술, 방향요법, 한방요법, 피부관리 등

<표 3-5> 의료관광상품에 따른 의료관광 유형

Health Tourism		
의료관광	성형수술	온천 및 대체요법
cancer treatment Health screening Health surgery Joint replacement Medical check-ups Neurosurgery Transplants	Breast augmentation Facelifts Liposuction	Acupuncture Aromatherapy Beauty care Facials and body scrubs Exercise and diet Flower remedies Herbal healing Homeopathy Hydrotherapy Hypnosis Massage etc.

■ 의료관광의 상품에 따른 유형

- 변정우·김양균(2010)은 의료관광 제공상품에 따라 치료형, 건강증진형, 미용형으로 구분함
- 의료관광 치료형은 희귀난치성 질환, 일반외과계 질환, 만성 질환등의 중증질환 혹은 입원을 의미하며 건강 증진형은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검진 등 진단 치료를 말함. 미용형은 성형수술, 피부과 검진 등 뷰티 관련 의료상품분야임
- 의료관광 상품에 따른 유형분류에는 관광분야의 웰니스 분야가 제외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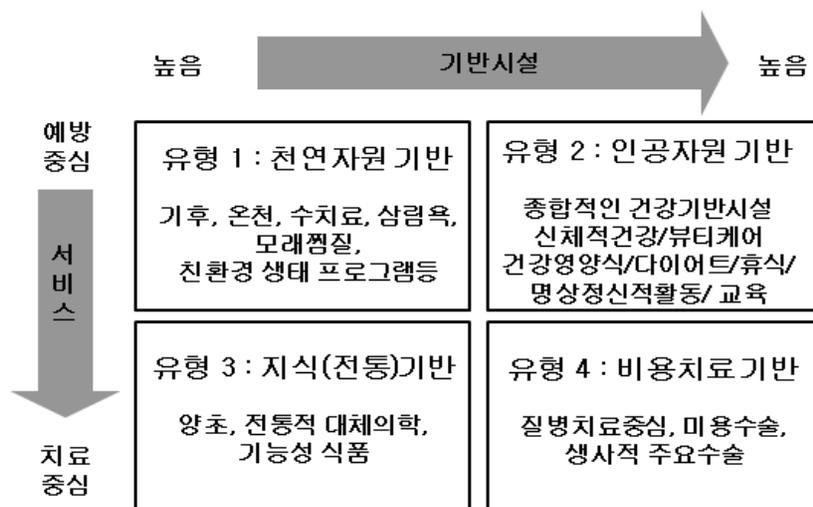
<표 3-6> 의료관광상품에 따른 의료관광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치료형	희귀난치성질환 일반외과계 질환 만성질환 심장 및 순환기계 질환 정형외과계 질환 신경외과계 질환 재활 및 요양	암질환 진단 및 치료 장기이식 수술 내분비계 질환치료 심장 및 폐질환 인공관절, 정형외과적 수술 척추 및 디스크 수술 및 치료 뇌혈관의 외과적 수술 재활센터 및 장기요양센터
건강증진형	건강검진센터 한방 클리닉 비만 클리닉 전통가옥	종합검진 실시 헬스투어 한방투어 체중감량 에코테라피
미용형	안과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뷰티클리닉	라식, 라섹수술 성형수술 치아미백 및 임플란트 상품 미용 및 헤어스파 상품 에스테틱

자료: 변정우·김양균(2010).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를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 및 수요예측.

## Ⅰ 의료관광 기반 시설 및 지원서비스에 따른 의료관광 유형

- 부창산(2009)은 건강관광(Health Tourism)의 유형을 의료관광 서비스에 따라 건강 예방차원과 치료중심으로 나누었으며 기반시설 유형에 따라 천연자원 기반과 인공 자원 기반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함
- 유형1(천연자원 기반): 천연자원에 근거한 건강관광으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며 온천 및 기후와 같은 목적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원들을 포함
  - 유형2(인공자원 기반): 인공자원에 근거한 건강관광으로 건강한 생활과 동시에 휴가 경험을 통합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수요를 부합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며 주로 호텔 및 리조트 등에서 이루어짐. 또한 특정 목적지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으며 수요에 따라 재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짐
  - 유형3(지식(전통)기반): 특수화된 지식이라는 이점을 통해 관광객을 유인하며 전통적인 유형은 허브나 식물을 기본으로 하며 청정유기농, 한방의료기술, 천연약재/환경치료, 전통치료, 음식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및 지식의 활용을 필요로 함
  - 유형4(비용치료 기반): 헬스 서비스가 자국 내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관광지에서 지불할 때 적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여 건강검진, 성형수술과 같은 선택적 치료나 암이나 심장수술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대한 치료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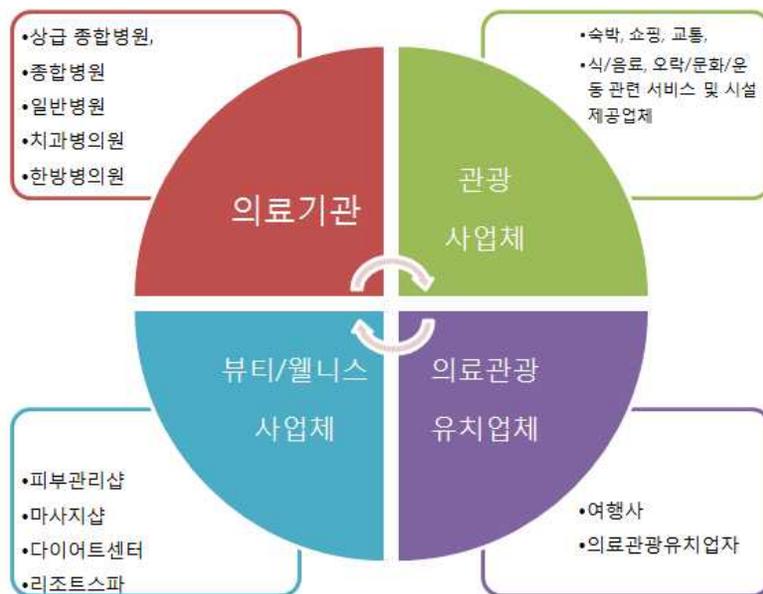
[그림 3-2] 기반시설 및 서비스 유형에 따른 의료관광의 분류

### 3 의료관광의 영역 및 관련 사업체

#### 3.1 의료관광의 영역설정

##### ■ 의료관광 주요서비스와 공급주체

- 의료관광의 의료는 수술, 시술, 치료, 검진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 관광은 의료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일체를 의미함. 또한 뷰티·웰니스 분야에서는 건강 및 미용 상의 증진을 위한 비 의료행위 관련 서비스를 의미함
- 공급측면에서의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 사업체는 의료기관,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시설제공 사업체, 뷰티·웰니스 관련 사업체, 의료관광 유치업체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상급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병·의원 등으로 구분 가능
  - 관광사업체는 숙박, 쇼핑, 교통, 식/음료,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및 시설 제공사업체로 구분 가능
  - 의료관광 유치업체는 여행사, 의료관광유치업체 등으로 구분 가능
  - 뷰티/웰니스 사업체는 피부관리샵, 마사지, 다이어트센터, 리조트 스파 사업체로 구분 가능



[그림 3-3] 의료관광 주요서비스 공급주체

## Ⅰ 의료관광 유형별 영역

- 의료관광객의 방문 목적을 중증의료연계형, 경증의료연계형, 뷰티·웰니스의료연계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의료활동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을 설정함
- 중증의료연계형의 경우 순수의료목적의 비중이 크고 관광 지출액이 적으며, 경증의료연계형의 경우 의료목적과 관광목적의 지출액 비율이 비슷하거나 의료목적이 큰 경우로 설정하였음. 반면 뷰티·웰니스 연계형은 의료기술적인 목적보다 뷰티, 휴양 등을 목적으로 관광목적의 지출액비율이 큰 경우임
  - 중증의료연계형의 경우 암수술, 척추수술, 심장수술, 난치병 치료 등의 순수 의료 목적으로 방문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분야에서의 지출은 낮은 수준
  - 경증의료연계형의 경우 건강검진, 성형, 피부과수술 등 경증 시술 목적으로 방문한 외래관광객을 의미하며 의료적인 시술이외에 관광분야의 지출액 비중과 의료분야의 지출액 비중이 비슷한 수준
  - 웰니스뷰티의료연계형의 경우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스파, 마사지, 미용(에스테틱), 테라피를 받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으로 관광분야의 지출액 비중이 큰 수준

<표 3-7> 의료관광의 영역

구분	의료분야	관광분야	비고
중증의료연계형	암질환 진단 및 치료 장기이식 수술(심장, 신장, 간, 폐) 내분비계질환치료 심장 및 폐질환 인공관절, 정형외과적 수술 척추 및 디스크 수술 및 치료 뇌혈관의 외과적 수술	교통 숙박	중증 의료목적으로 방문한 의료관광객으로 관광분야의 비중이 매우 작은 유형
경증의료연계형	건강검진 성형 피부과수술 안과진료 재활 및 요양* 치과진료 한방진료	교통 숙박 음식 공연 쇼핑 등	경증 의료목적으로 방문한 의료관광객으로 관광분야의 비중이 의료목적과 비슷하거나 이상인 유형
뷰티·웰니스의료연계형	스파(마사지) 미용(에스테틱) 다이어트 안티에이징 테라피(수치료, 숲치료) 시술(추나, 카이로프랙틱)등	교통 숙박 음식 쇼핑 공연	뷰티 웰니스 목적으로 방문한 의료관광객으로 관광분야의 비중이 매우 큰 유형

\*물리치료, 운동치료, 도수치료, 수치료, 숲치료, 노르딕워킹

## 3.2 의료관광의 대상 및 관련 사업체

### Ⅰ 의료관광객

- ‘의료관광객’은 이러한 의료관광을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의미함
  - 의료관광객의 의료행위는 중증의료형, 경증의료형, 뷰티·웰니스의료연계형의 치료, 수술 또는 시술을 의미함
  - 의료관광객의 관광활동은 쇼핑, 숙박, 교통, 식/음료, 오락/문화/운동, 기타 여가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임

### Ⅰ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사전에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함.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등의 사업 실적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해야 함(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9)
- 의료기관 전문인력
  - 국제 전문 의사
    - 국제 전문 의사는 국제인증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사로서 의료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최근에는 해외에서 학위 또는 수련과정을 마치거나 의료 활동을 펼친 의사가 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국제진료센터를 개설하는 등 의료관광객과 의료진 사이의 언어,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음
  - 국제 임상간호사
    - 국제 임상간호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전문적인 임상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상황의 전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간에 효과적이고 원활할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절, 중재 및 관리하는 역할로 의료관광객 유치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의료관광객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효과적으로 고객을 케어 할 수 있도록 의료지식과 통번역 능력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유치업무의 핵심을 담당함
    - 공항영접 및 환송, 원무, 진료, 요양, 관광레저문화, 보험 등 의료관광객의 입국에

서 출국,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모든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의료진과 의료 관광객과의 중개자이자 의사소통창구로 활동

- 메디컬 센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을 포함해 각 분야 별 의료기관 혹은 의료관광 유치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이외에도 의료컨설팅업체, 실버타운, 병원서비스 강사 등으로 활동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등 언어적 능력 외에도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과 고도의 전문적 의료관광 통번역 지식을 갖추어야 함
-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공인자격 증 제도가 시행됨
- 의료관광 마케터
  - 의료관광 마케터는 국내외 의료관광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상호 연결하고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여 상품개발 및 홍보 등 의료관광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의료관광 마케터는 여행사, 의료컨설팅 업체에서부터 메디컬 센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까지 폭넓게 활동하고 있음
- 의료관광 푸드코디네이터
  - 종교 및 지역별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국의 요리를 제공하는 역할 담당함. 해당 의료관광객에게 맞춤 요리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의료기관의 수익성 향상 등 의료관광 발전에 다방면에서 기여하고 있음. 주로 대형 종합병원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의료관광 푸드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함
  - 이슬람 국가에서의 ‘할랄’푸드 등 주요 의료관광객의 식문화 패턴을 이해하고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관광의 질을 향상시킴
- 의료관광 국제간병사
  - 국제간병사는 의료관광객의 입원 기간 내내 환자 가까이에서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는 물론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그러므로 전문적인 간병지식과 질병별 간병법은 물론 영어, 일어, 중국어, 몽골어와 아랍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과 해외 환경에 대한 이해도 요구됨

## ■ 관광부문 사업체

### ○ 웰니스·뷰티의료연계형 의료관광 사업자

- 의료관광객이 수술을 통한 질병치료보다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휴양이나 스파(마사지), 미용(에스테틱), 다이어트, 안티에이징, 각종

- 테라피, 의학적 진단이 요구되지 않는 시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함
- 주로 리조트, 스파, 뷰티숍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적으로 또는 경제적  
으로 여유있는 의료관광객들에게 선호되고 있음
- 최근 웰니스뷰티 의료관광업체의 경우 테라피 치료부터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상  
품까지 다양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세분화된 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 의료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교통, 숙박 등 부가가치 사업체
  - 일반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산업군과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의료관광객들이 방문하  
여 이용하는 교통, 숙박, 음식, 쇼핑, 공연 등 사업체

####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 에이전시)

-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와 진료계약을  
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특징을 갖고 있음
  -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 기관에 외국인 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추선)하  
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수수료 거래가 없으면 유치행위로 볼 수 없음)
  -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및 사증발급 대행을 통해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추선)하는 것
  - 외국인환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 의료서비스(입국에서 출국까지 제공  
하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홍보활  
동(외국어홈페이지 개설, 일간지, 책자, 팸플릿 등 외국어 간행물 제작 및 배포  
포함)으로 의료 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추선)하는 것

#### ■ 의료관광 정보제공업체

- 의료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정보제공업체는 의료관광 지원산업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관련 언론사 등 정보 서비스 제공 업체  
를 의미함

#### ■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업체

-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업체는 의사 등 전문 의료인 이외에 코디네이터, 웰니스 전  
문가 등을 관련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및 업체를 의미함

#### ■ 의료관광객 대상 보험상품 제공업체

- 의료관광객 대상 보험상품 제공업체는 기초적인 단계의 여행자보험에서 의료 행위

를 포괄할 수 있는 생명보험, 손해보험등과 관련한 제반 보험 제공업체를 의미함

■ 의료관광 관련 제조업체

- 의료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행하는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한 제조업체를 의미함
- 예를들어 의료기기제조업, 의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등을 포함함

<표 3-8> 기타 의료관광 지원사업 유형

구분	특징
의료관광유치업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의 진료계약을 알선 및 주선하는 사업 등의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의료관광 정보제공업체	의료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의료관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업체 및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취득 교육업체
관련 보험상품제공	의료행위에 대한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관련 보험제공업
의료관광관련제조업체	의료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행하는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한 제조업체를 의미함

:

## IV. 의료관광산업의 분류체계 설정

1. 표준산업분류 및 관광산업 특수분류
2. 의료관광 분류 기준 및 방법
3. 의료관광의 산업분류체계(안)
4. 시사점



# 1 표준산업분류 및 관광산업 특수분류

## 1.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 단위, 기업체 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임
- 산업 활동에 의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하여 활동 카테고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통계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KSIC 내 의료관광산업은 대분류 Q의 보건업과 관광산업 부문인 I, K, S부문과 높은 관련이 있음
-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일정 분류 구조 및 부호체계에 의하여 분류됨
  - 분류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s), 중분류(2자리 숫자사용/Divisions), 소분류(3자리 숫자사용/Groups),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e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es)의 5단계로 구성 되어 있음
  - 중분류의 번호는 01부터 99까지 부여하였으며,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하여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는 국제분류권고안 ISIC Rev.4를 기본체계로 하였으나,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 분류의 각 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 그룹화 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하고 있음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함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함
- 현재 2008년 개정 이후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6개, 소분류 228개, 세분류 487개, 세세분류 1,145개로 구성

<표 4-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업종명
A	01-03	011-032	0111-0322	01110-03220	농업, 임업 및 어업
B	05-08	051-080	0510-0990	05100-08090	광업
C	10-33	101-339	1010-3399	10110-33999	제조업
D	35-36	351-360	3511-36020	35111-3602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37-39	370-390	3701-3900	37011-3900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보건업
F	41-42	411-425	4100-4390	41111-42500	건설업
G	45-47	451-479	4510-4799	45110-47999	도매 및 소매업
H	49-52	491-529	4911-5299	49100-52999	운수업
I	55-56	551-562	5510-5622	55111-56220	숙박 및 음식점업
J	58-63	581-639	5811-6399	58111-6399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64-66	641-662	6411-6620	64110-66209	금융 및 보험업
L	68-69	681-694	6811-6940	68111-694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70-73	701-739	7011-7390	70111-7390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74-75	741-759	7410-7599	741000-7599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84	841-845	8411-8450	84111-845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85	851-857	8510-8570	85110-85709	교육서비스업
Q	86-87	861-872	8610-8729	86101-8729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90-91	901-912	9011-9129	90110-9129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94-96	941-969	9411-9699	94110-9699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97-98	970-982	9700-9820	97000-9820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99	990	9900	99001	국제 및 외국기관

## 1.2 UN의 표준산업분류(ISIC Rev. 4.0) 개정안

- 국제적인 산업분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1948년에 최초로 제정된 UN의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은 유엔통계처(UNSD)에서 작성되고 있음
- 1차 개정(1958), 2차 개정(1968), 3차 개정(1989)을 거쳐 소규모 개정이 ISIC Rev.3.1(2002)로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4차 개정(2006) 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분류체계는 Section(A~U), Division(01~99), Group(011~990), Class(0111~9900)등 4단위로 분류하고 있음
- 의료관광산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의 Q섹션(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I섹션(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등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 국내 표준산업분류체계와 분류기준이 유사함

※ **경제통계의 분류유형**

- 경제통계의 분류유형은 크게 생산활동분류, 무역상품분류, 산출물(재화 및 서비스)분류, 산업별 생산물 분류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생산활동분류 유형으로는 UN에서 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준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EU회원국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도록 1970년에 제정한 NACE(Nomenclature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Union) 등이 있음
- 무역상품분류 유형으로는 국제표준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상품용도분류(BEC: The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 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 Harmonize System)가 있음
- 산출물(재화 및 서비스)분류는 1970년대 초부터 UN, EU 및 국제기구에서 국제경제분류간 연계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여 서로 상이하나 관련성이 있는 산업활동 분류를 포괄하는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가 있음
- 산업별 생산물 분류(CPA)는 UN의 산업원천별 이동재화 분류(CCIO: Classification of Commodities by Industrial Origin), EU의 생산물활동별통계분류(CPA: Classification of Products by Activity)등이 있으나 한국의 산업별 생산물 분류는 광공업통계조사용 품목표(이동재화)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는 무역통계와의 분석에 한계가 있음

### 1.3 관광진흥법 기준 관광산업 분류

- 『관광진흥법』(2013.11개정) 2장 1절 3조에서는 관광사업을 7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4-2>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종 류	정 의	세부업종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을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또한 포함함)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이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 관광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기업의 영업 활동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 행정기관 등의 비영리 활동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임
- 2010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해당항목을 선정하여 관광산업특수분류를 제정·운용 중에 있음. 관광산업의 법적 근거인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산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주수현·유영명, 2009)

- 관광산업의 경우 개념상 명확하게 산업 영역을 구분 짓기 어렵고 업종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호배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
  - 또한 관광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관광산업분류 체계와 연관되어 분류체계를 설정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함
- 1차적으로 분류되는 관광산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1)여행업, 2)관광숙박업, 3)관광객이용시설업, 4)국제회의업, 5)카지노업, 6)유원시설업, 7)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 이외에 관광산업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2차적으로 관련 음식점업, 항공·여객운송과 같은 교통·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쇼핑·관광상품 판매와 같은 소매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1.4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

-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를 위해 국내 산업 실태에 맞게 분류 품목 및 포괄범위를 설정함
- 관광산업특수분류는 국제관광산업 분류기준과 호환가능하며, 우리나라 관광활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됨(2012.12개정)
  - 분류코드 대, 중, 소, 세분류 등 4단위로 분류하고 있으며, KSIC와 연계하여 분류하고 있음
  - 특히 관광과 관련한 재화와 서비스는 관광활동과 관광 지출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립함
- 관광산업특수분류는 관광사업체의 사업특성에 따라 핵심관광산업, 상호의존관광, 부분적용관광산업, 관광지원산업 등 총 4부문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 핵심관광산업은 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아래 표에 포함된 산업군을 중심으로 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포함함
  - 상호의존관광산업은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을 의미함
  - 부분적용 관광산업은 부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을 의미함
  - 관광지원산업은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을 의미함
- 의료관광산업분류체계 설정 시 관광산업 특수분류 기준과 분류 방식들을 준용하는 것은 관광산업군의 분류체계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음

<표 4-3> 관광산업특수분류 부문별 범위 및 내용

부문	분류번호 범위	내용
핵심관광산업	101~108	관광쇼핑업, 관광운수업,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점업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오락 및 레저스포츠산업, 카지노업
상호의존관광산업	201~204	관광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소매업, 관광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레저장비업
부분적용관광산업	301~306	관광비인증 쇼핑업, 부분 관광 운송업, 부분관광숙박업, 부분관광음식점업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서비스업
관광지원산업	401~404	관광연구개발업, 관광공공기관, 관광교육서비스업, 관광단체

## 2 의료관광 분류 기준 및 방법

### 2.1 의료관광산업분류의 필요성

#### ■ 의료관광 산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관광산업군의 구축

- 의료관광산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산업규모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가치를 조사하기가 힘든 현실을 반영하여 명확한 의료관광 산업영역 및 범위를 제시
- 의료관광산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축되었을 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 및 의료관광산업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

####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기초 의료관광산업분류체계 수립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는 타 산업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의료관광산업의 특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산업과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 새로운 산업이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산업간 구분을 위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존산업과 연관성은 높으나 관련산업에 포함시키기에 애매할 정도로 급성장 하는 분야라는 특성이 존재
  - 현재 의료관광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의료분야와 구분이 힘들다는 점 등이 부합함

#### ■ 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의 창출

- 융합형 관광산업의 종류와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관광산업의 구조는 전통관광산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산업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료와 관광분야의 연계와 융합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로 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및 타산업간의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특수분류체계설정이 시급함
- 이러한 특수분류체계는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 국가경쟁력 제고 등에 중요한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련분류 항목으로 재구성한 분류이며, 관련 산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통계간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 ■ 의료관광 산업의 분류 어려움 극복

-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와 관광산업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관광 각각의 분야에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분류 체계와의 연동이 어려움
  - 따라서 의료관광산업의 분류체계는 기존의 의료분야와 건강증진을 위한 뷰티·웰니스 분야, 기타 관광분야를 아우를 수 있고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 의료관광산업의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을 위한 분류체계 설정

-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관광산업을 산업연관표 상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
  - 산업분류 및 통합방식에 따라 각종 승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총산업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의료관광산업은 물론 관광분야에서도 산업분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융합 관광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했고, 기존의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수준에 머무름
- 의료관광산업분류체계의 설정과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의료관광산업분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의료관광산업분류를 조명하여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 ■ 의료관광 통계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현재 일부 특정 기관에서 특수목적으로 개발된 단편적인 의료관광 관련 자료·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확대된 규모와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관광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관광의 명확한 산업분류체계의 설정은 향후 유사 의료관광 조사의 증가에 따른 분석의 틀을 일원화 하고 비효율적인 조사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산업분류체계의 설정은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작업으로 수집할 자료의 범위, 내용, 개념체계, 조사 항목 등 체계적인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2 의료관광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sup>13)</sup>

### ■ 의료관광산업분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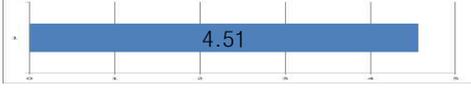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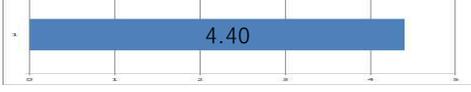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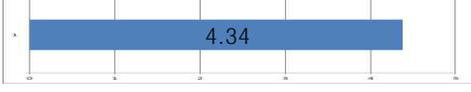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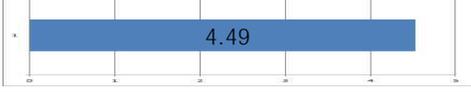
- 의료관광 산업분류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 전문가들의 중요성 지각은 전체평균 4.51로 매우 높게 인식함

<표 4-4> 의료관광산업분류의 필요성

문항	평균값
의료관광 산업분류의 필요성 인식	

- 의료관광산업분류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 항목을 묻는 문항에서는 ‘통계 생산을 위한 근거자료의 생성’이 평균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를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료관광의 기여도 산출’이라는 응답이 평균 4.49로 나타남
- 반면 ‘융합산업으로서의 의료관광산업범위 설정’은 평균 4.34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5> 의료관광산업분류 필요성의 세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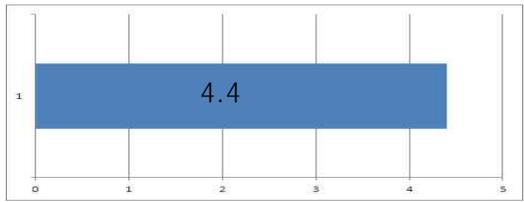
문항	평균값
① 융합산업으로서의 의료관광산업범위 설정	
② 통계 생산을 위한 근거자료 생성	
③ 합리적 정책의사 결정 기초자료 활용	
④ 융합산업으로서 의료관광 산업진흥	
⑤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료관광의 기여도 산출	
전체평균	4.40

13) 조사개요 및 설문지는 부록 참조.

### Ⅰ 의료관광산업발전 가능성

- 융합산업으로서의 의료관광산업의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한 질문에 매우 크다는 응답이 17명(4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평균은 4.4로 전문가 의견조사 의료관광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4-6> 의료관광산업의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

문항	평균값
의료관광산업의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	

### Ⅰ 의료관광 통계생산의 필요성

- 현재 외국인 환자 중심의 의료관광분야 통계를 관광관련 활동 분야로 확장하여 통계를 생산할 필요를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8명(51.4%)로 나타남
- 확장된 통계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은 전체 평균 4.42로 나타남

<표 4-7> 의료관광 통계생산의 필요성

문항	평균값
의료관광 통계생산의 필요성	

## 2.3 의료관광산업 분류 원칙 및 분류방법

### 2.3.1 기본 방향 및 원칙

#### Ⅰ 의료관광산업 분류의 기본방향

- 전체 산업 구조의 틀 안에 위치하고 있을 것
- 의료관광산업의 특성과 발전과정을 반영하고 있을 것

- 국제간 비교 가능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
- 통계작성 및 분석에 용이하도록 기존 산업분류와 관광산업분류 등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

### ■ 분류원칙

- 단일기준(Single Perspective)
  - 의료관광산업 유형의 제공 서비스별, 의료관광객들의 방문 목적별, 상품별 등 다양한 관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단일 기준 원칙을 수립해야 함
- 상호배타성(Exclusiveness)
  - 각각의 분류항목은 다른 분류항목과 서로 배타적이어야 함
- 유동성(Flexibility)
  - 의료관광산업의 발전 및 새로운 시장변화와 조응해야하기 때문에 분류체계의 유동적인 변형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함
- 호환성(Interoperability)
  - 향후 의료관광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의 분류체계와 유사한 기준에서 비교될 수 있어야 함
- 명확성(Definitude)
  - 의료관광산업의 포괄범위가 명확해야 함
- 비교성(Comparability)
  - 국내 타 산업분류 및 국제기구, 주요국가 등과 비교가 가능해야 함

### 2.3.2 분류방법

#### ■ 의료관광산업 특성 및 영역 설정

- 의료관광 사업, 산업 등에 대한 개념적 범위 설정
-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의료관광 분류 검토
- 의료관광분야 산업분류체계 설정을 위하여 의료관광 유형과 범위 및 기 분류된 분류 기준들을 활용하여 산업분류 체계를 설정함

#### ■ 전문가 인터뷰, 서면자문 진행

- 산업분류체계 구축 이전 통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분류체계의 분류원칙 및 포괄 범위 등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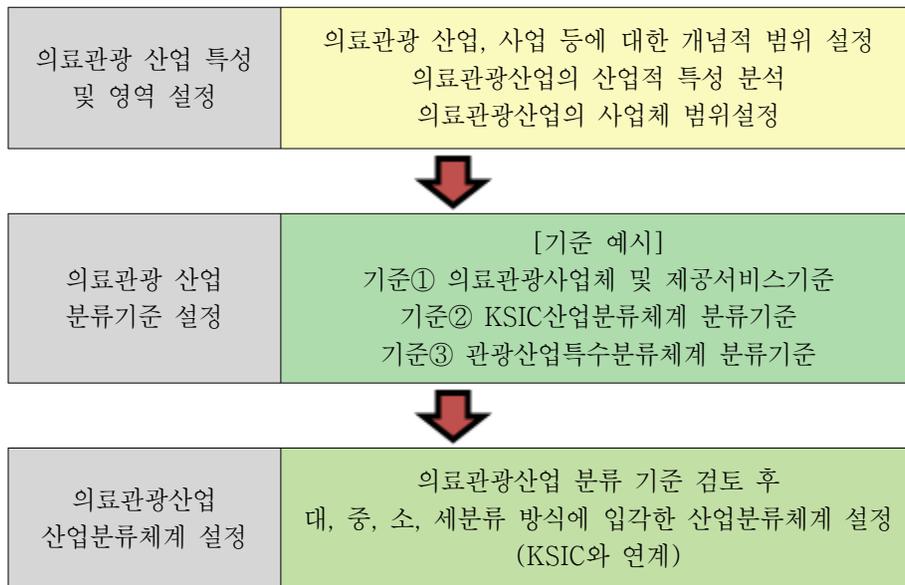
- 산업분류체계 구축 후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서면 자문 진행

■ 분류기준설정

- 기준① 의료관광사업체 및 제공서비스기준
- 기준② KSIC산업분류체계 분류기준
- 기준③ 관광산업특수분류체계 분류기준

■ 의료관광산업 분류체계 설정

- 의료관광산업 분류 기준 검토 후 대, 중, 소, 세분류 방식에 입각한 산업분류체계 설정(KSIC와 연계)



[그림 4-1] 의료관광 산업분류 체계 설정 과정

### 3 의료관광의 산업분류체계(안)

#### 3.1 의료관광 관련 사업체 분류

##### Ⅰ 의료사업체 분류

- 의료관광객은 의료관광 서비스의 수요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술, 수술, 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제공하는 의료사업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기타의원으로 분류 가능함
-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각 의료사업체에서는 내과진료,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함
  - 한의원과 같은 한방병원은 한방서비스로 통칭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뷰티·웰니스 분야에서는 피부관리샵(에스테틱), 마사지업소, 다이어트 센터, 리조트 스파로 구분 가능함

<표 4-8> 의료분야 공급기관 유형과 서비스 분야

분야	의료기관 유형	주요 진료(서비스)분야
의료	상급종합 병원	내과통합**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종합병원	내과통합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병원	내과통합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치과병·의원	치과검진
	한방병·의원	한방통합***
	의원 등*	내과통합
검진센터		

분야	의료기관 유형	주요 진료(서비스)분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뷰티 웰니스	피부관리샵	스파(마사지) 미용(에스테틱), 안티에이징 다이어트 테라피(수치료, 숲치료 등) 시술(추나, 카이로프랙틱)등
	마사지업소	
	다이어트센터	
	리조트스파	

\*의원 외 요양병원을 포함함

\*\*내과통합: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11개 진료과)

\*\*\*한방중합: 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11개 진료과)

## Ⅰ 관광사업체 분류

- 의료관광객의 의료서비스 외의 에이전시, 숙박, 쇼핑, 교통, 식/음료, 오락/문화/운동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함
  -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사업체는 호텔, 리조트, 모텔, 유스호스텔, 콘도, 펜션, 레지던스, 홈스테이(외국인도시민박업), 게스트 하우스로 분류할 수 있음
  - 쇼핑관련 의료관광사업체는 크게 백화점과 면세점을 중심으로 아울렛 등 쇼핑몰, 재래시장, 기타 소매업소 등에서 발생함
  - 교통서비스는 항공, 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 여객선 관련 사업체로 분류할 수 있음
  - 식음료 분야의 서비스는 일반 음식점,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주류전문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는 문화(한류)체험, 자연 풍경 감상, 역사유적지, 테마파크/놀이공원, 공연/전시시설, 운동센터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 Ⅰ 의료관광 유치사업체

- 의료관광 유치사업체는 의료관광 중개업체와 의료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의료관광 유체사업체는 의료관광객의 진료계약 알선 서비스,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 의료서비스(입국에서 출국까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등을 제공함

<표 4-9> 관광분야 주요 서비스 분야와 공급사업체

	분야	주요사업
관광	숙박	호텔
		리조트
		모텔, 유스호스텔
		콘도, 펜션, 레지던스
		홈스테이(외국인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
	쇼핑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 등 쇼핑몰
		재래시장
		기타 소매업소
	교통	항공
		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KTX 포함)
		여객선
	식/음료	레스토랑
		일반음식점
		주류판매점
		커피전문점
	오락/문화/운동	문화(한류)체험
		자연 풍경 감상
		역사유적지
테마파크/놀이공원		
공연/전시시설		
운동센터		
에이전시	의료관광 유치	의료관광 중개업체
		여행사

### 3.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의료관광산업과 연계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9차 개정<sup>14)</sup>을 통해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ISIC Rev.4 Draft)안을 반영함
- 또한 산업분류의 분류항목 간 연계를 위하여 관련 분류 간 연계성, 통합성 및 일관

14) 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은 2007년 이루어졌으며, 10차 개정은 2017년 공개예정임.

성을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표준산업분류는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구분하여 각 산업 분야별 산업코드를 부여하고 있음
- 의료관광산업에 포함되는 표준산업분류체계의 대분류는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숙박 및 음식점업, H운수업, G도매 및 소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C제조업 총 12개 대분류가 포함됨
- 표준산업분류체계가 총 21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관광분야는 총 10개 대분류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산업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표 4-10>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의료관광산업 관련 부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보건업	861병원	8610병원	86101종합병원 86102일반병원 86103치과병원 86104한방병원
		862의원	8620의원	86201일반의원 86202치과의원 86203한의원 86204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의원
		869기타 보건업	8690기타 보건업	86902유사의료업 86909그외 기타 보건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9611이용업	96113피부미용업 96119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9612욕탕, 마사지 및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96121욕탕업 96122마사지업 96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다이어트센터, 체중감량센터)
			9699그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서비스업	96993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산후조리원, 개인간병인)
I숙박 및 음식점업	55숙박업	551숙박시설 운영업	5511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11호텔업 55112여관업 55113휴양콘도 운영업 55119기타 관광시설숙박업
	56음식점 및 주점업	561음식점업	5611일반음식점업	56111한식음식점업 56112중식음식점업 56113일식음식점업 56114서양식음식점업 56119기타외국식음식점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613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56132이동음식점업	
			5619기타음식점업	56191제과점업 56192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56193치킨전문점 56194분식 및 김밥점문점 561999그외 기타음식점업	
		562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5621주점업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6219기타주점업	
			5622비알콜음료점업	56220비알콜음료점업	
H운수업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1철도운송업	4910철도운송업	49110철도운송업	
		492육상여객 운송업	4921도시정기육상 여객운송업	49211도시철도운송업 49212시내버스운송업 49219기타 도시 정기육상여객운송업	
			4922시외버스운송업	49220시외버스운송업	
			4923부정기여객 육상운송업	49231택시운송업 49232전세버스운송업 49239기타부정기여객육상운송업	
	50수상 운송업	501해상운송업	5011외항운송업 5012내항운송업	50111외항여객운송업 50121내항여객운송업	
		502내륙수상 및 항만내운송업	5020내륙수상 및 항만내운송업	50201내륙수상여객운송업	
	51항공 운송업	501정기항공 운송업	5010정기항공운송업	50100정기항공운송업	
		502부정기항공 운송업	5020부정기항공 운송업	50200부정기항공운송업	
	G도매 및 소매업	47소매업	471종합소매업	4711대형종합소매업	47111백화점 47119기타대형종합소매업
				4712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	47121슈퍼마켓 47122체인화편의점 47129기타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
4719그 외 기타종합 소매업				47190그 외 기타종합소매업	
472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4721식료품소매업	47214과실 및 채소소매업 47215빵 및 과자류 소매업 47216건강보조식품소매업 47219기타식료품소매업		
		4722음료 및 담배소매업	47221음료소매업 47222담배소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73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4732가전제품소매업	47320가전제품소매업	
		474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1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11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47411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47412한복소매업	47412한복소매업
				47413남녀용정장소매업	47413남녀용정장소매업
		47414유아용 의류소매업	47415내의소매업	47414유아용 의류소매업	47414유아용 의류소매업
				47415내의소매업	47415내의소매업
				47416셔츠 및 기타의복소매업	47416셔츠 및 기타의복소매업
		47419기타섬유, 직물, 및 의복악세서리 소매업	47420신발소매업	47419기타섬유, 직물, 및 의복악세서리 소매업	47419기타섬유, 직물, 및 의복악세서리 소매업
				47420신발소매업	47420신발소매업
				47430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	47430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
		476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4761서적및 문구용품 소매업	47611서적및잡지류소매업	47611서적및잡지류소매업
				47612문구용품소매업	47612문구용품소매업
		4762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62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620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47620음반및비디오물소매업
47811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	47811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				
47812의료용기구소매업	47812의료용기구소매업				
478기타상품 전문소매업	4783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13화장품및방향제소매업	47813화장품및방향제소매업		
		47830시계및귀금속소매업	47830시계및귀금속소매업		
		47841예술품및기념품소매업	47841예술품및기념품소매업		
47842관광민예품및선물용품소매업	47842관광민예품및선물용품소매업	47842관광민예품및선물용품소매업	47842관광민예품및선물용품소매업		
		479무점포 소매업	4792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20노점 및 유사이동소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공연시설운영업	90110공연시설운영업	
		902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	9022박물관 및 사적지관리운영업	90221박물관운영업	
			90222사적지관리운영업	90222사적지관리운영업	
			9023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운영업	90231식물원및동물원운영업	
90232자연공원운영업	90232자연공원운영업				
9029기타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 관련서비스업	90290기타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 관련서비스업	90290기타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 관련서비스업			
912유원지 및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121유원지및테마파크 운영업	91210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3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그외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0기외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3902번역및통역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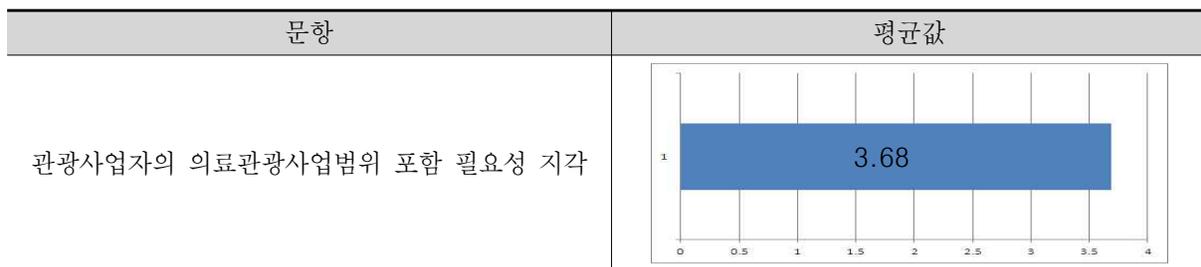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752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여행사업 7529기타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75211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75290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3정보 서비스업	631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69임대업	691운송장비 임대업	6911자동차임대업	-	
P교육 서비스업	85교육 서비스업	856기타교육 기관	8565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5659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K금융 및 보험업	65보험 및 연금업	651보험업	6511생명보험업 6512손해 및 보증보험업	65110생명보험업 65121손해보험업	
C제조업	10식료품 제조업	107기타식품 제조업	1079기타식품제조업	10795인삼식품제조업 10796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0화학물 질 및 화 학제품 제 조업:의약 품 제외	204기타화학 제품 제조업	2043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33화장품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기초의약 물질 및 생물 학적 제제 제조업	2110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의약품 제조업	2121완제의약품제조업 2122한제의약품제조업	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제품 제조업	2131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제품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 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의료용기기 제조업	2711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기타의료용기기 제조업	27191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그외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 3.3 의료관광 산업범위 전문가 조사 결과<sup>15)</sup>

#### ■ 의료관광산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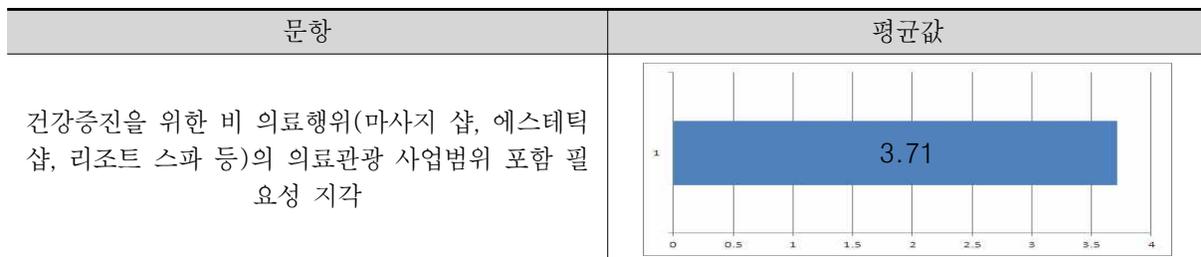
- 2015년도 의료법상에는 의료관광사업자를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객 유치업자로 한정하고 있음
- 의료관광사업자의 범위에 관광분야(숙박, 교통, 쇼핑, 식/음료, 오락/문화/운동)관련 사업자 포함 필요성을 묻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체 평균 3.68로 나타남

<표 4-11> 관광사업자의 의료관광 포함의견



-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건강증진을 위한 비 의료행위(예를 들어, 마사지 샵, 에스테틱 샵, 리조트 스파)를 의료관광 사업분야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2명(34.3%)으로 나타남
- 뷰티·에스테틱 서비스와 같은 비 의료행위의 의료관광산업 포함 필요성 지각은 전체 평균 3.71로 나타남

<표 4-12> 비의료 행위의 의료관광 포함의견



- 의료관련 제조 및 유통분야(예를 들어 차류가공업,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를 의료관광 사업 분야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13명(37.1%)으로 나타남
- 제조업 및 유통 분야의 의료관광 산업 필요성 지각은 전체 평균 2.88로 나타나 상

15) 조사개요 및 설문지는 부록 참조.

대적으로 낮게 지각함

<표 4-13> 의료관련 제조 및 유통분야의 의료관광 포함의견



■ 한국표준산업과 의료관광산업 간 연계성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체계와 의료관광산업의 연관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병원의 평균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의원의 평균이 4.8로 나타남
- 뷰티·웰니스 산업군을 의미하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의 경우 평균이 3.49로 전체평균인 3.4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관광분야에서는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이 평균 4.23으로 높게 나타났고, 숙박시설운영업이 평균 4.18로 나타남

<표 4-14>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와 의료관광산업의 연관성 설문 결과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861 병원	4	5	4.91	.284
2) 862 의원	3	5	4.80	.473
3) 96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2	5	3.49	.887
4) 713 광고업	1	5	3.40	1.090
5) 75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3	5	4.23	.690
6) 551 숙박시설 운영업	1	5	4.18	.869
7) 561 음식점업	1	5	3.69	1.078
8) 562 주점 및 비알콜음식점업	1	5	2.74	1.094
9) 491 철도운송업	2	5	3.34	.873
10) 492 육상여객운송업	2	5	3.46	.919
11) 501 해상운송업	2	5	3.23	.973
12) 502 내륙수상 및 항만내운송업	2	5	3.26	1.010
13) 511 정기항공운송업	2	5	3.97	.985
14) 512 부정기항공운송업	2	5	3.54	1.010
15) 471 종합소매업	1	5	3.00	1.057
16) 47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1	5	2.83	1.150
17)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	5	2.63	.910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8)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	5	2.80	.994
20)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소매업	1	5	3.40	1.035
21)	478	기타 상품전문소매업	1	5	2.74	.886
22)	479	무점포소매업(전자상거래 등)	1	5	2.56	.960
23)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공연시설운영 등)	1	5	3.29	1.110
24)	902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서비스업(박물관 및 사적지)	1	5	3.54	.980
25)	912	유원지 및 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1	5	3.43	1.065
26)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포털, 정보매개서비스 등)	1	5	3.18	1.114
27)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의료관광정보제공 등)	1	5	3.97	.891
28)	691	운송장비임대업(자동차렌탈 서비스)	1	5	3.12	.946
29)	692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스포츠용품임대업 등)	1	5	2.54	.886
30)	856	기타교육기관(의료관광전문인력양성사업)	3	5	4.29	.710
31)	651	보험업	2	5	4.00	.767
32)	107	기타식품제조업(인삼 가공식품 제조 등)	1	5	3.23	1.031
33)	204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1	5	2.57	1.065
34)	211	기초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	5	2.89	1.022
35)	212	의약품 제조업	1	5	3.54	.980
36)	213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품관련제품제조업	1	5	3.57	1.037
37)	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1	5	3.43	1.065
전체평균					3.41	

### 3.4 의료관광 산업분류 설정(안)

#### ■ 의료관광산업 분류절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의료관광산업 분류방안은 핵심, 연계형, 지원 산업 등 3개 차원의 대분류로 분류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연계하여 의료관광산업을 분류함
  - KSIC을 바탕으로 분류된 의료관광산업을 기준으로 의료관광객들의 주요 지출분야, 미래가치, 현실적인 의료관광산업 유형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분류안을 제시함
  - 이러한 분류는 표준산업분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 산업 분류에서도 동일한 분류 항목들을 참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기존 통계를 연계하여 의료관광산업을 분석하고 조사가 용이함
- 다음단계에서는 개별 산업을 기존의 표준산업분류를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이과정에서 의료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들을 재분류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기초한 의료관광산업분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산업분류체계를 준용한다는 점임
  - 의료관광산업의 특징은 타 산업분야와 연계되고 중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 산업분류체계의 하위항목으로 재분류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산업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산업분류 과정에서 표준 산업분류체계를 준용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의 특징을 보전하면서 산업 간의 배타적 특성까지 유지할 수 있음
- 의료관광산업을 3개 차원의 대분류로 분류하고 각 대분류에 대응하는 표준산업분류 체계 소분류 및 세세 분류를 선정함

### ■ 의료관광산업의 유형분류

- 의료관광산업을 핵심의료관광산업, 연계형의료관광산업, 의료관광지원산업 등의 3개 대분류로 구분하며 중분류 4개, 소분류 12개, 세분류 36개로 분류함
- 핵심의료관광 산업은 보건·의료산업과 핵심관광산업을 포함하며 의료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여 필수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산업군으로 의료의 시술, 수술, 검진 등의 서비스와 뷰티·웰니스 서비스, 관광 분야에서 필수적인 서비스(숙박, 식음료, 교통, 의료관광 중개업)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집단을 의미함
  - 보건·의료산업은 기존 의료관광산업의 핵심분야인 보건·의료분야와 뷰티·웰니스 분야를 포함하는 산업군임
  - 핵심관광산업은 의료관광객들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반드시 수요가 발생하는 산업군으로 관광산업분야에서의 숙박, 식음료산업과 교통을 포함함
- 연계형의료관광산업은 의료관광객들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의료관광이외에 부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산업군으로 의료관광객들의 활동 비중이 높은 쇼핑, 문화생활 등을 포함함
  - 크게 소매업과 문화,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매업은 의료관광객의 쇼핑행위와 연관된 산업군을 의미하고 문화,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의료관광객의 공연감상, 문화체험과 연관된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함
- 의료관광지원산업은 의료관광객들의 직접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나, 간접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산업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산업군으로 의료관광정보제공, 의료관광전문가 양성·교육, 의료관광 관련 보험업, 의료관광관련제조업을 포함함

## Ⅰ 의료관광산업과 KSIC과의 연계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분류체계의 핵심의료관광산업 중 보건·의료산업으로 대응
  - 보건·의료산업은 핵심의료산업과 뷰티·웰니스 산업으로 분류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I숙박 및 음식점업, H운수업은 핵심의료관광산업 중 핵심관광산업으로 대응시킴
  - 핵심관광산업은 의료관광유치산업, 관광숙박업, 관광식·음료업, 관광교통업으로 분류
- G도매업 및 소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연계형의료관광산업으로 대응
  - 연계형의료관광산업은 소매업, 문화여가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
-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K금융및보험업, C제조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의료관광지원산업으로 대응함
  - 의료관광지원산업은 의료관광관련서비스업, 의료관광교육서비스업, 의료관광보험업, 의료관광관련 제조업으로 분류
- 의료관광산업분류의 대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 세세분류 연계 현황을 보면 핵심의료관광산업은 14개 소분류와 57개 세세분류로, 연계형관광산업은 10개 소분류와 65개 세세분류로 의료관광지원산업은 12개 소분류와 26개의 세세분류로 연계됨

<표 4-15>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의료관광산업 대분류 대응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의료관광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보건·의료산업	핵심의료산업
			연계뷰티·웰니스산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I숙박 및 음식점업 H운수업	→	핵심관광산업	의료관광유치산업
			관광숙박업
			관광식·음료업
			관광교통업
G도매 및 소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연계형의료관광산업	
		소매업	
		문화, 여가관련서비스업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K금융및보험업 C제조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	의료관광지원산업	
		의료관광관련서비스업	
		의료관광교육서비스업	
		의료관광보험업	
		의료관광관련 제조업	

<표 4-16> 의료관광산업분류체계(안)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코드 및 항목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항목명		
1	핵심 의료 관광 산업	1-1	보건·의료 산업	1-1-1	핵심의료 산업	1-1-1-1	병원	861	병원	
							1-1-1-2	의원	862	의원
				1-1-2	연계뷰티·웰니스 산업	1-1-1-3	미용 및 유사서비스업	96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1-2	핵심 관광 산업	1-2-1	의료관광 유치 산업	1-2-1-1	광고업	713	광고업	
						1-2-1-2	여행사업, 기타여행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1-2-2	관광 숙박업	1-2-2-1	숙박시설 운영업	551	숙박시설 운영업	
	1-2-3			관광식·음료업	1-2-3-1	음식점업	561	음식점업		
					1-2-3-2	주점 및 비알콜음식점업	562	주점 및 비알콜음식점업		
	1-2-4			관광 교통업	1-2-4-1	철도운송업	491	철도운송업		
		1-2-4-2	육상여객운송업		492	육상여객운송업				
		1-2-4-3	해상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1-2-4-4	내륙수상 및 항만내운송업		502	내륙수상 및 항만내운송업				
			1-2-4-5	정기항공운송업	511	정기항공운송업				
			1-2-4-6	부정기항공운송업	512	부정기항공운송업				
	2	연계형 의료 관광 산업	2-1	연계형 관광 산업	2-1-1	소매업	2-1-1-1	종합소매업	471	종합소매업
							2-1-1-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47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2-1-1-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2-1-1-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1-1-5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소매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소매업	
2-1-1-6							기타상품전문 소매업	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2-1-1-7							전자상거래, 기타통신판매	479	무점포소매업	
2-1-2							문화, 여가 관련	2-1-2-1	공연시설운영업	901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코드 및 항목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항목명			
3	의료 관광 지원 산업	3-1	의료 관광 지원 산업	서비스업	2-1-2-2	박물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시설 운영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서비스업	
					2-1-2-3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서비스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3-1-1	의료 관광 관련 서비스업	3-1-1-1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3-1-1-2	의료관광정보 제공사업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
						3-1-1-3	운송장비임대업	691	운송장비임대업
						3-1-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
				3-1-2	의료 관광 교육 서비스업	3-1-2-1	기타 교육기관	856	기타 교육기관
				3-1-3	의료 관광 보험업	3-1-3-1	보험업	651	보험업
				3-1-4	의료 관광 관련 제조업	3-1-4-1	인삼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3-1-4-2	화장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1-4-3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1-4-4	의약품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3-1-4-5	의료용품 및 기타의 약관련 제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의 약관련 제품 제조업
						3-1-4-6	의료용기기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표 4-17> 의료관광산업분류 세분류별 주요산업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소분류 코드 및 항목명		의료관광산업 세분류별 주요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항목명					
1	핵심 의료 관광 산업	1-1	보건·의료 산업	1-1-1	핵심의료 산업	1-1-1-1	병원	861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1-1-1-2	의원	862	의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기타의원 등
			1-1-2	연계뷰티·웰니스 산업	1-1-1-3	미용 및 유사서비스업	96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미용, 피부관리샵, 마사지업소, 다이어트센터	
		1-2	핵심 관광 산업	1-2-1	의료관광 유치 산업	1-2-1-1	광고업	713	광고업	의료관광 광고 대행, 작성업 등
						1-2-1-2	여행사업, 기타여행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여행사, 숙박알선, 여행자 가이드서비스업
				1-2-2	관광 숙박업	1-2-2-1	숙박시설 운영업	551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 리조트, 모텔, 유스호스텔, 콘도, 펜션, 레지던스,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1-2-3			관광식·음료업	1-2-3-1	음식점업	561	음식점업	일반음식점, 기타음식점업, 이동식음식점	
			1-2-3-2		주점 및 비알콜 음식점업	562	주점 및 비알콜 음식점업	주점, 주스전문점, 커피숍		
	1-2-4		관광 교통업	1-2-4-1	철도운송업	491	철도운송업	도시간철도(KTX 포함), 관광열차		
				1-2-4-2	육상여객 운송업	492	육상여객 운송업	도시철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1-2-4-3	해상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외항여객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1-2-4-4	내륙수상 및 항만내운송업	502	내륙수상 및 항만내운송업	내륙수상여객운송업		
				1-2-4-5	정기항공 운송업	511	정기항공 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1-2-4-6	부정기 항공운송업	512	부정기 항공운송업	부정기 항공운송업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소분류 코드 및 항목명		의료관광산업 세분류별 주요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항목명					
2	연계형 의료 관광 산업	2-1	연계형 의료 관광 산업	2-1-1	소매업	2-1-1-1	종합소매업	471	종합소매업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 아웃렛등 쇼핑몰,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
						2-1-1-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47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 재래시장, 기타소매업소
						2-1-1-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소매, 가전제품 소매
						2-1-1-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가죽제품 소매업
						2-1-1-5	문화, 오락및 여가용품소매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소매업	음반, 비디오물 소매, 스포츠용품 소매, 게임용구 소매
						2-1-1-6	기타상품전문 소매업	478	기타상품전문 소매업	의약품, 의료용품 소매, 의료용기구 소매, 화장품 소매, 사무용기기, 사진장비, 시계, 귀금속 소매
						2-1-1-7	전자상거래, 기타통신판매	479	무점포소매업	전자상거래, 기타 통신 판매업
		2-1-2	문화, 여가관련 서비스업	2-1-2-1	공연시설운영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시설운영업		
				2-1-2-2	박물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시설 운영업	902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서비스업	박물관, 사적지운영업, 식물원, 동물원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2-1-2-3	유원지및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	유원지및기타 오락관련서비스업	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갠블링 및 베탱업, 무도장운영업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소분류 코드 및 항목명		의료관광산업 세분류별 주요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항목명					
3	의료 관광 지원 산업	3-1	의료 관광 지원 산업	3-1-1	의료관광 관련 서비스업	3-1-1-1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의료관광웹호스팅서비스, 포털,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3-1-1-2	의료관광정보 제공사업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	의료관광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3-1-1-3	운송장비 임대업	691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 및 운송장비 임대	
					3-1-1-4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임대업	692	개인및가정 용품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임대업	
				3-1-2	의료관광 교육 서비스업	3-1-2-1	기타교육기관	856	기타교육기관	의료관광전문 인력양성사업
				3-1-3	의료관광 보험업	3-1-3-1	보험업	651	보험업	의료관광객대상 보험사업
				3-1-4	의료관광 관련 제조업	3-1-4-1	인삼식품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	기타식품 제조업	인삼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3-1-4-2	화장품제조업	204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3-1-4-3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화합물 제조, 생물학적제제 제조 등
						3-1-4-4	의약품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제조, 한의약품제조
						3-1-4-5	의료용품및 기타의약품관련 제품제조업	213	의료용품및기타의약품관련제품제조업	의료용품, 기타의약품관련제품제조업
						3-1-4-6	의료용기기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방사선장치, 전기식진단기기 제조, 치과용기기제조, 정형외과용기기 제조, 의료용가구제조,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 등

<표 4-18> 의료관광산업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세세분류)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세세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1	1-1	보건·의료산업	1-1-1	핵심의료 산업	1-1-1-1	병원	86101,86103
					86102,86104		
			1-1-2	연계뷰티· 웰니스 산업	1-1-1-2	의원	86201,86203
					86202,86204		
			1-1-3	미용 및 유사서비스업	1-1-1-3		96111,96119,96129
					96112,96121		
	96113,96122						
	1-2	핵심관광산업	1-2-1	의료관광 유치산업	1-2-1-1	광고업	71310,71391,71392,71393
					1-2-1-2	여행사업, 기타여행지원 서비스업	75211,75212,75290
			1-2-2	관광 숙박업	1-2-2-1	숙박시설 운영업	55111,55112,55113,55114, 55119
					1-2-3-1	음식점업	56111,56112,56113,56114, 56119,56131,56132,56191, 56192,56193,56194,56199
			1-2-3-2	주점 및 비알콜음식점업	1-2-3-2		56211,56212,56219,56220
					1-2-4-1	철도운송업	49100
			1-2-4	관광 교통업	1-2-4-2	육상여객운송업	49211,49212,49219,49220, 49231,49232,49239
					1-2-4-3	해상운송업	50111,50121
					1-2-4-4	내륙수상 및 항만내운송업	50201,50203
					1-2-4-5	정기항공운송업	51100
					1-2-4-6	부정기항공운송업	51200
					2-1-1-1	종합소매업	47111,47119,47121,47122, 47129,47190
			2-1-1-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47211,47212,47213,47214, 47215,47216,47219,47221, 47222		
2-1-1-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7311,47312,47320			
2-1-1-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11,47412,47413,47414, 47415,47416,47419,47420, 47430					
2-1-1-5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소매업	47611,47612,47620,47631, 47632,47640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세세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3	의료 관광 지원 산업	3-1	의료 관광 지원 산업	2-1-2	문화,여가 관련서비 스업	2-1-1-6	기타상품전문소매업	47811,47812,47813,47821, 47822,47823,47829,47830, 47841,47842,47851,47852, 47859
						2-1-1-7	전자상거래, 기타통신판매	47911,47919
						2-1-2-1	공연시설운영업	90110
						2-1-2-2	박물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시설운영업	90221,90222,90231,90232, 90290
						2-1-2-3	유원지및기타오락 관련서비스업	91210,91221,91222,91223, 91229,91231,91239,91241, 91249,91291,91299
						3-1-1-1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12,63120
				3-1-1	의료관광 관련 서비스업	3-1-1-2	의료관광정보제공 사업	63991
						3-1-1-3	운송장비임대업	69110,69190
						3-1-1-4	스포츠및레크레이션 용품임대업	69210
						3-1-2-1	기타교육기관	85640,85659
				3-1-2	의료관광 교육 서비스업	3-1-2-1	기타교육기관	85640,85659
				3-1-3	의료관광 보험업	3-1-3-1	보험업	65110,65121
				3-1-4	의료관광 관련 제조업	3-1-4-1	인삼식품및건강기능 식품제조업	10795,10797,10799
						3-1-4-2	화장품제조업	20433
3-1-4-3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21102						
3-1-4-4	의약품 제조업	21210,21220,21230						
3-1-4-5	의료용품및기타의약 관련제품제조업	21300						
3-1-4-6	의료용기기 제조업	27111,27112,27191,27192, 27193,27199						

## 4 시사점

### ■ 분류체계를 활용한 관련 산업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 수립

- 의료관광산업은 정부차원의 장기투자가 필요한 기술·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의료관광산업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의료관광산업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분류체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의료관광 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하는 의료관광산업분류체계(안)을 설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미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의료관광산업분류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의료관광산업분류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계청, 한국은행 등 통계생성기관들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함
- 의료관광산업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 확보된 데이터를 통한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 측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 의료관광산업 분류체계를 활용한 통계작성방안 연구 수행 필요

- 의료관광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설정을 통해 관련 산업의 투자 및 진흥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의료관광 산업 통계 자료의 생성이 필요함
- 현재 의료관광통계 자료의 생산은 의료관광객의 의료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의료관광객의 관광활동 및 관광 지출에 대한 통계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한 통계작성이 이루어져야 함

### ■ 융합형 관광산업 범위를 반영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의 범위 조정 필요

- 의료관광산업군은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높고 타 산업과 융합·연계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산업범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산업의 범위와 상이한 측면이 존재함

-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산업의 범위는 전통적인 의미의 관광산업(여행업, 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의료관광산업과 같이 타 분야와 융합된 관광 산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추후 의료관광산업과 같은 융합형 관광산업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산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관광 산업범위를 구체화 하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체의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의료관광 산업의 투자액, 수요액등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함
- 융합형 관광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의 분류체계안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근거한 분류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료관광 산업을 산업연관표상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V.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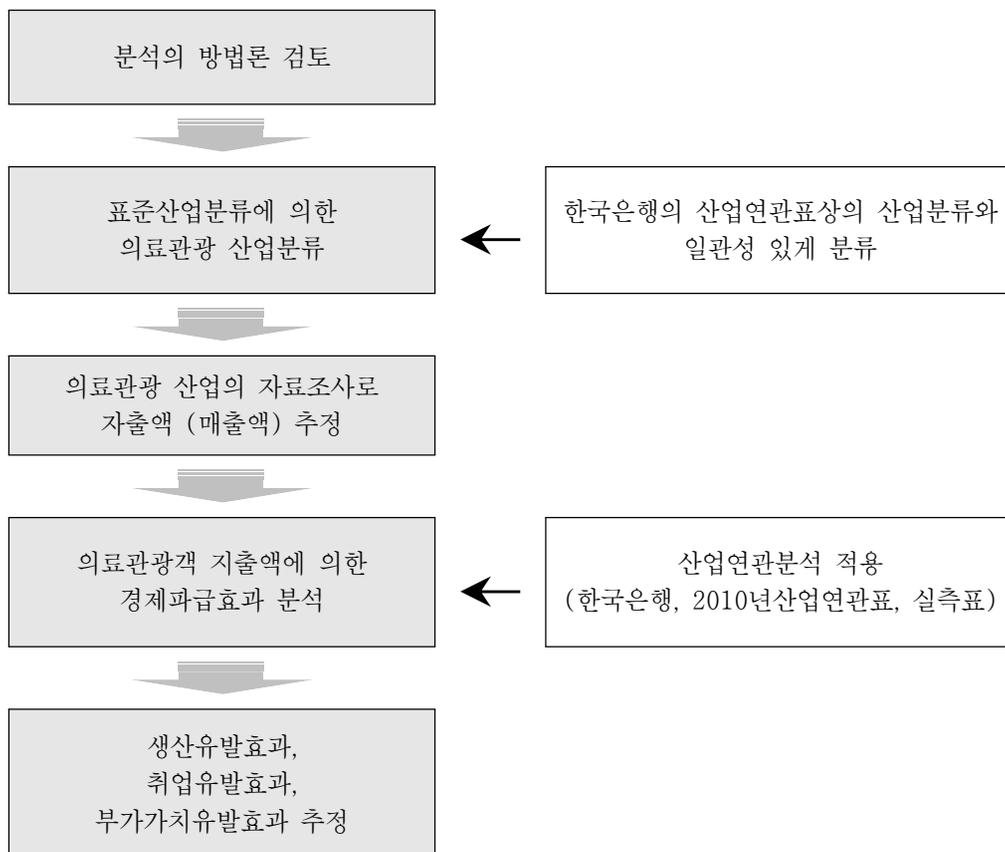
1. 분석체계 및 분석방법론
2. 산업연관표상 의료관광산업분류 및 지출액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 1 분석체계 및 분석방법론

## 1.1 분석체계

- 의료관광객 대상 지출액 추계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의료관광산업에서 기 도출된 산업분류체계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10년 실측표 기준의 중분류 82부문)의 산업분류와 일치시킨 뒤 생산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등을 도출함
- 유발계수를 근거로 의료관광산업의 지출액에 적용하여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종 도출함



[그림 5-1] 의료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과정

## 1.2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제품에 대한 1단위 외부 수요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소득, 고용 등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음(한국은행, 1987)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발승수들은 최종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산출함

### 1.2.1 생산유발계수(역행렬계수)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가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생산유발승수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학적 방법인 역행렬을 이용해 구한다 하여 역행렬계수라고도 함(이강욱·류광훈, 1999)
- 생산유발계수 도출과정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수식에서의  $(I-A)^{-1}$  행렬을 생산유발계수 행렬이라 함

$$AX+Y-M=X$$

$$X-AX=Y-M$$

$$(I-A)X=Y-M$$

$$X=(I-A)^{-1}(Y-M)$$

단, A: 투입계수행렬, X: 총 산출액 벡터, Y: 최종수요 벡터, M: 수입액 벡터, I: 항등행렬,  $(I-A)^{-1}$ : 생산유발계수

### 1.2.2 노동계수와 고용유발계수

- 노동유발계수 또는 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인 노동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함. 이때 노동유발계수에서 노동계수를 제한 나머지가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간접 노동유발을 의미함
-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계수식은 다음과 같음

$$l = \frac{L}{X}$$

단, l은 노동계수, L은 투입노동량, X는 총산출액

- 노동계수를 생산유발계수에 대입하여 노동유발계수를 도출되며,  $l(I-A)^{-1}$ 가 노동유발계수 행렬이 됨

$I = \frac{L}{X}$  을 풀면  $L = I \cdot X$ 가 되며, 여기에

$X = (I - A^d)^{-1} Y^d$  를 대입하여 풀면

$$L = I (I - A^d)^{-1} Y^d$$

### 1.2.3 부가가치유발계수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이때,  $\hat{A}^v(I - A^d)^{-1}$ 이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임

$\hat{A}^v X = V$ 에

$(I - A^d)^{-1} Y^d = X$  를 대입,

$$\hat{A}^v (I - A^d)^{-1} Y^d = V$$

단,  $\hat{A}^v$ 는 부가가치합계 대각행렬,  $V$  부가가치합계의 벡터

### 1.2.4 의료관광산업의 지출액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방법

- 의료관광 관련 항목별 지출액을 산업부문의 최종수요로 삼아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유발계수행렬에 적용함으로써 직접효과 및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의료관광 관련 지출액을 최종수요에 대입하고 타 산업의 최종수요를 “0”으로 처리하여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최종수요의 열행렬을 곱하면 의료관광 지출액에 의한 생산유발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취업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도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 유발계수에 최종수요액 벡터를 적용하여 각각의 유발효과를 산출할 수 있음

$$(I - A)^{-1} \times C = O$$

단,  $(I - A)^{-1}$  : 생산유발계수행렬

$C$  : 의료관광 관련 지출액이 대입된 최종수요 열행렬

$O$  : 생산유발계수의 열행렬

## 2 산업연관표상 의료관광산업분류 및 지출액

### 2.1 의료관광산업의 산업연관표상 분류

- 의료관광 관련 수요자의 지출 항목을 한국은행의 2010년기준 산업연관표(실측표) 중 분류 기준(82 부문)으로 의료관광 관련 항목의 해당부문을 분류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함
- 의료관광객에 의한 항목별 지출액을 추계한 자료를 최종수요로 전제하고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부문과 대응시켜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추정함
- 의료관광 관련 지출 항목은 크게 의료비, 에이전시 지급비, 숙박비/음료비, 쇼핑비, 교통비, 오락/문화/운동비용, 기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의료비 항목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으로 산업연관표상의 의료보건업과 연관됨
  - 에이전시 지급비 항목은 의료관광객 지출의 필수항목은 아니나 의료관광 중개업체(여행사, 코디네이터 등)등에 지출한 비용으로 산업연관표 상의 사업지원서비스와 연관됨
  - 숙박비/음료비는 의료관광객의 숙박 및 식음료비 지출 관련 항목으로 산업연관표상의 숙박비 및 식음료 항목과 연관됨
  - 쇼핑비는 의료관광객의 쇼핑비 지출비용을 의미하며 산업연관표상의 도소매업 항목과 연관됨
  - 교통비 항목은 의료관광객의 항공, 철도, 버스 등 이동서비스 관련 지출비 항목을 의미하며 산업연관표상의 육상운송, 항공운송, 해상운송 항목과 연관됨
  - 오락/문화/운동 항목은 의료관광객의 문화서비스 관련 지출비용으로 산업연관표상의 문화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항목과 연관됨
  - 기타 항목은 의료관광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으로 산업 연관표상의 사업지원서비스와 연관됨

&lt;표 5-1&gt; 의료관광 관련 지출항목과 산업연관표와 연계

의료관광 관련 지출 항목	산업연관표상 분류 (82부문)	산업연관표의 적용
의료비	77.의료보건업	'77.의료보건업' 부문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적용
에이전시 지급비	74. 사업지원서비스	'74.사업서비스' 부문에 의료관광 중개업체(의료관광유치업체, 여행사 등)에 지출한 비용을 적용
숙박비/음료비	58. 숙박 및 식음료	'58.숙박 및 식음료' 부문에 의료관광객의 숙박 및 식음료비에 지출한 비용을 적용
쇼핑비	53. 도소매	'53.도소매' 부문에 의료관광객의 쇼핑비 지출비용을 적용
교통비	54. 육상운송; 55. 수상운송; 56. 항공 운송	'54.육상운송' 부문에 교통비 지출비용을 적용
오락/문화/운동	79. 문화서비스; 80. 스포츠및오락서비스	'79. 문화서비스'에 오락문화운동 관련 지출비용을 적용
기타	74. 사업지원서비스	'74.사업지원서비스' 부문에 기타 지출비용을 적용

## 2.2 의료관광산업의 항목별 지출액

- 의료관광산업의 항목별 지출액 산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2014년 7월~10월까지 총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관광 만족도 및 국내 의료기관 '관광'서비스 부문 수용태세 조사」 에서 산출한 자료를 근거로 함
  - 해당 조사는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안내홍보센터'에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최근 3년 이내 의료관광 마케팅을 전개한 경험이 있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조사방법은 의료기관 조사표 유치 후 의료관광객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됨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국적별, 지역별 비례할당을 실시함
  - 각 항목의 평가지수는 항목별, 지역별 등의 편차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선정함
-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항목의 경우,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2014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조사는 '14년도 의료관광객 266,50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료비 지출항목에 대한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됨
  - 반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조사의 경우 관광부문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액 조사가 누락되어 있어 관광부문 지출액은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만족도 및 국내 의료기관 '관광'서비스 부문 수용태세 조사」 자료를 근거로 산정함

- 의료관광산업의 항목별 지출액은 총 7분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핵심적으로 의료비, 에이전시 지급비, 숙박비, 쇼핑비, 교통비, 식음료비, 오락/문화/운동비용으로 구분하였음
- 의료관광 관련 지출액의 산정은 1인당 평균지출액(만원) × 의료관광객(명)의 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함
  - 의료관광객 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2014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26만 6,501명으로 산정
- 2014년도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총액은 747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방문객의 총 지출액은 1조 9,931억 58백만원으로 나타남
- 의료관광 관련 수요자의 지출 항목을 볼 때 상위 3개의 지출항목은 의료비 5,543억 22백만원, 쇼핑비 4,077억 46백만원, 숙박비 3,411억 21백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이전시 지급비용이 평균 1,889억 49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지출 규모에서 의료관광 중개업체의 지출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 그 외 의료관광객들은 오락/문화/운동 등 문화활동 지출비용이 1,199억원 25백만원, 식/음료비 지출 1,092억원 65백만원, 교통비 지출이 533억원으로 나타남

<표 5-2> 의료관광객의 활동분야별 지출금액

	1인당평균 지출액 (만원)		2014년도 의료관광객 수(명)	지출액 (백만원)
	지출액 (만원)	비율 (%)		
의료비	208	27.8	266,501명	554,322
에이전시 지급비	70.9	9.5		188,949
숙박비	128	17.1		341,121
쇼핑비	153	20.5		407,746
교통비	20	2.7		53,300
식/음료비	41	5.5		109,265
오락/문화/운동	45	6.0		119,925
기타	82	11.0		218,530
총액	747.9	100	-	1,993,158

자료: 한국관광공사(2014)에서 총1,507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2014년 10월까지 의료관광객들을 조사한 자료임.  
 단 의료비 지출액 및 의료관광객수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 조사 2014년도 자료를 근거로 함.  
 \* 교통비 항목은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비를 의미함

###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 3.1 의료관광산업 유발계수 추정

-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했을 때 각 산업부문이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간재로 필요한 타 산업의 생산물들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효과를 생산유발계수로 표현함
- 의료관광산업의 각 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타 산업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함
  - 계수가 크다는 것은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계수가 작다는 것은 연관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의료보건분야(77)에서 생산유발계수가 1.7092, 취업유발계수가 0.0146,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8304라고 한다면 해석은 아래와 같음
  - 100만원의 지출(수요)이 발생했을 때 의료보건분야에서 약 170만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며, 0.01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시킴.
  -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0만원의 수요당 약 83만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킴

<표 5-3> 의료관광산업의 유발 계수

분류 번호	상품(산업)	생산유 발계수	취업유 발계수	부가가 치유발 계수	분류 번호	상품	생산유발 계수	취업유발 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001	작물	1.4781	0.0501	0.8734	042	자동차	2.4458	0.0086	0.6838
002	축산물	2.5920	0.0294	0.8046	043	선박	2.1578	0.0070	0.6221
003	임산물	1.3653	0.0267	0.9409	044	기타 운송장비	2.1943	0.0075	0.6128
004	수산물	1.8117	0.0125	0.7436	045	기타 제조업 제 품 및 임가공	2.0543	0.0143	0.7883
005	농림어업 서비스	1.8973	0.0165	0.7883	046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1.6083	0.0037	0.5071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2.0544	0.0146	0.8441	047	가스, 증기 및 온수	1.1655	0.0013	0.2363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1.7450	0.0098	0.8492	048	수도	1.7977	0.0068	0.8202
008	식료품	2.4421	0.0223	0.7030	049	폐수처리	1.9966	0.0104	0.8420
009	음료품	1.8118	0.0091	0.8092	050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서비스	2.1298	0.0166	0.7789

분류 번호	상품(산업)	생산유 발계수	취업유 발계수	부가가 치유발 계수	분류 번호	상품	생산유발 계수	취업유발 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010	담배	1.2624	0.0029	0.8868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2.2290	0.0125	0.7666
011	섬유 및 의복	2.0940	0.0131	0.6327	052	토목건설	2.2353	0.0163	0.7857
012	가죽제품	2.0531	0.0145	0.6175	053	도소매 서비스	1.7931	0.0221	0.8747
013	목재 및 목제품	1.9187	0.0113	0.5780	054	육상운송서비스	1.8589	0.0256	0.7205
014	펄프 및 종이제품	2.1259	0.0098	0.6217	055	수상운송서비스	1.3828	0.0029	0.2552
015	인쇄 및 복제	2.1210	0.0177	0.7689	056	항공운송서비스	1.3499	0.0030	0.4106
016	석탄 및 석유제품	1.1942	0.0013	0.2897	0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1.9140	0.0149	0.8462
017	기초화학 물질	1.8773	0.0036	0.3753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0484	0.0270	0.8099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2.2443	0.0046	0.4736	059	통신서비스	1.9670	0.0126	0.8368
019	화학섬유	1.8956	0.0052	0.4624	060	방송서비스	1.8305	0.0109	0.8293
020	의약품	1.7053	0.0086	0.6718	061	정보서비스	1.8709	0.0110	0.8498
021	비료 및 농약	1.7075	0.0077	0.4957	062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관리 서비스	1.5649	0.0140	0.8254
022	기타 화학제품	1.9329	0.0074	0.5537	063	출판서비스	2.2018	0.0183	0.7963
023	플라스틱 제품	2.3366	0.0089	0.6212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2.0201	0.0181	0.7905
024	고무제품	1.9832	0.0076	0.5696	065	금융서비스	1.5693	0.0097	0.9274
025	유리 및 유리제품	1.6230	0.0056	0.6111	066	보험서비스	1.9987	0.0164	0.8518
026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2.3092	0.0113	0.6906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1.5068	0.0105	0.9374
027	철강1차제품	2.6320	0.0044	0.4751	068	주거서비스	1.3053	0.0019	0.9761
028	철강가공 제품	2.5965	0.0053	0.5635	069	부동산서비스	1.4041	0.0109	0.9381
029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1.5733	0.0050	0.3137	070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1.6305	0.0122	0.8732
030	금속 주물	2.4576	0.0072	0.5290	071	연구개발	1.6605	0.0140	0.8217
031	금속제품	2.3854	0.0087	0.6664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8505	0.0217	0.8976
032	일반목적용 기계	2.3672	0.0092	0.6790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1.6375	0.0179	0.8607

분류 번호	상품(산업)	생산유 발계수	취업유 발계수	부가가 치유발 계수	분류 번호	상품	생산유발 계수	취업유발 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033	특수목적용 기계	2.3472	0.0095	0.6753	074	사업지원 서비스	1.5909	0.0290	0.8956
034	전기장비	2.1452	0.0077	0.6156	075	공공행정 및 국방	1.4070	0.0133	0.9285
035	반도체	1.5222	0.0036	0.5320	076	교육서비스	1.4676	0.0206	0.9105
036	전자표시 장치	2.0085	0.0047	0.5477	077	의료 및 보건	1.7092	0.0146	0.8304
037	기타 전자부품	1.9969	0.0088	0.5711	078	사회복지 서비스	1.9046	0.0367	0.8232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504	0.0056	0.5413	079	문화서비스	1.7931	0.0230	0.8646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2.0262	0.0064	0.5213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1.7578	0.0160	0.8554
040	가정용 전기기기	2.5179	0.0092	0.6792	081	사회단체	1.9585	0.0306	0.8654
041	정밀기기	2.0094	0.0092	0.6439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1.8746	0.0313	0.8101

\* 각 계수는 한국은행의 2010년 산업연관표(실측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발행되는 연장표보다 산업연관분석 결과의 정확성이 높음

### 3.2 의료관광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의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성됨
  - 직접효과는 의료관광객의 직접 지출항목과 연관된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액을 의미함
  - 간접효과는 의료관광객의 직접 지출항목과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산업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의미함
- 산업연관분석결과 2014년 자료 기준으로 총생산유발효과 3조 5,635억 62백만원 으  
로 추정되며 직접효과는 2조 2,233억 26백만원, 간접효과는 1조 3,402억 36백만원  
으로 추정됨(<표 5-4> 참조).
  - 직접효과에는 도소매서비스, 육상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사업지원서  
비스, 의료 및 보건, 문화서비스 부문이 포함됨
  - 간접효과에는 직접효과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한 산업연관표(81부문)에서의 75  
부문에 대한 유발효과를 포함함
- 의료관광산업의 총 취업유발효과는 45,181명으로 추정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6,887억 77백만원으로 의료관광객 총 지출액(1조 9,931억 58백만원)의 약 69.3%으로 추정됨

<표 5-4> 의료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명)*	부가가치유발효과
총효과(1+2)	3,563,562.6	45,181.1	1,688,777.2
직접효과 (1)	2,223,326.5	35,437.0	1,178,646.0
간접효과 (2)	1,340,236.1	9,744.0	510,131.2

주 \*: 취업유발효과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용임시직, 임금근로자, 상용임시직,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 3.3 의료관광산업 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각 품목부문에 서 직·간접적으로 생산되어야할 산출액 단위를 나타내는 계수임
- 의료관광의 생산유발효과는 생산유발계수에 투입액인 의료관광산업의 최종지출액을 곱한 값으로 산출됨(<표 5-5> 참조)
  - 세부부문별 의료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도·소매서비스 5,605억 86백만원, 육상운송서비스 884억 40백만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026억 7백만원, 사업지원서비스 4,556억 5백만원, 의료보건서비스 5,653억 78백만원, 문화서비스 1,280억 35백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의료관광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접유발효과를 의미하며 의료관광산업의 생산유발직접효과는 2조 2,233억 26백만원으로 나타남
  - 반면 전체산업의 생산유발간접효과는 1조 3,402억 36백만원으로 나타나 의료관광산업으로 발생한 직·간접 효과를 포함한 총 생산유발효과는 3조 5,635억 62백만원으로 산출됨

<표 5-5> 의료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분류번호	상품 (산업)	생산유발효과	분류번호	상품	생산유발효과
001	작물	40,066.6	042	자동차	16,247.6
002	축산물	25,882.4	043	선박	475.6
003	임산물	2,663.1	044	기타 운송장비	1,931.1
004	수산물	15,317.7	0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2,360.7
005	농림어업 서비스	2,137.1	0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44,007.4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379.3	047	가스, 증기 및 온수	27,451.9

분류 번호	상품 (산업)	생산 유발효과	분류 번호	상품	생산 유발효과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419.9	048	수도	6,589.4
008	식료품	125,278.3	049	폐수처리	2,584.2
009	음료품	27,644.2	0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14,238.0
010	담배	0.0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4,916.0
011	섬유 및 의복	18,839.4	052	토목건설	0.0
012	가죽제품	3,939.7	053	도소매 서비스 *	560,586.2
013	목재및목제품	3,506.8	054	육상운송서비스*	88,840.9
014	펄프 및 종이제품	30,260.9	055	수상운송서비스	1,566.8
015	인쇄 및 복제	13,037.5	056	항공운송서비스	11,114.6
016	석탄 및 석유제품	71,264.7	0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33,527.8
017	기초화학물질	31,529.6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502,607.3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0,407.2	059	통신서비스	60,524.1
019	화학섬유	572.5	060	방송서비스	8,088.4
020	의약품	87,025.7	061	정보서비스	6,964.4
021	비료 및 농약	5,590.1	062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12,260.7
022	기타 화학제품	26,975.8	063	출판서비스	9,961.5
023	플라스틱 제품	26,243.4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3,343.9
024	고무제품	5,851.7	065	금융서비스	58,618.0
025	유리 및 유리제품	3,966.8	066	보험서비스	27,890.5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2,182.8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12,913.0
027	철강1차제품	14,369.2	068	주거서비스	0.0
028	철강가공제품	4,912.4	069	부동산서비스	83,256.0
029	비철금속 및 1차제품	7,949.3	070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6,254.6
030	금속 주물	1,474.1	071	연구개발	0.4
031	금속제품	22,014.4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30,934.7
032	일반목적용기계	12,835.7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9,505.0
033	특수목적용기계	3,937.2	074	사업지원 서비스*	455,605.2
034	전기장비	21,971.9	075	공공행정 및 국방	1,291.7
035	반도체	1,774.4	076	교육서비스	2,240.2
036	전자표시장치	2,801.3	077	의료 및 보건 *	565,378.0
037	기타 전자부품	3,388.2	078	사회복지 서비스	0.0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3,090.4	079	문화서비스*	128,035.2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8,169.3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5,085.9
040	가정용 전기기기	5,976.2	081	사회단체	2,956.0
041	정밀기기	14,839.2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22,923.5
총효과 (1-82)		3,563,562.6			
직접효과		2,223,326.5			
간접효과		1,340,236.1			

\*는 직접 유발효과산업 부문으로 도소매서비스, 육상운송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의료 및 보건서비스, 문화서비스 산업부문임

### 3.4 의료관광산업의 취업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는 의료관광 최종수요 1단위(백만원)에 대해 해당 부문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취업자 수(직접효과)와 타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간접효과)를 합한 직·간접 유발 인원을 의미함
- 의료관광의 취업유발효과는 취업유발계수에 투입액인 의료관광산업의 최종지출액을 곱한 값으로 산출됨
  - 의료관광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서비스 8,701명, 육상운송서비스 1,819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8,547명, 사업지원서비스 10,924명, 의료보건서비스 5,197명, 문화서비스 2,047명으로 나타남
  - 이는 의료관광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부문의 직접유발효과를 의미하며 의료관광산업의 취업유발직접효과는 총 35,437명으로 나타남
  - 반면 직접 연관된 산업부문 이외 전체산업의 취업유발간접효과는 9,744명으로 나타나 의료관광산업으로 발생한 직·간접 효과를 포함한 총 취업유발효과는 45,181명으로 나타남

<표 5-6> 의료관광산업의 취업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분류 번호	상품 (산업)	취업 유발효과	분류 번호	상품	취업 유발효과
001	작물	1,854.4	042	자동차	32.4
002	축산물	350.9	043	선박	0.8
003	임산물	62.0	044	기타 운송장비	3.8
004	수산물	114.2	0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69.1
005	농림어업 서비스	21.5	0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50.7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3.1	047	가스, 증기 및 온수	12.6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1.9	048	수도	22.0
008	식료품	483.9	049	폐수처리	10.7
009	음료품	72.8	0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116.4
010	담배	0.0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28.0
011	섬유 및 의복	106.4	052	토목건설	0.0
012	가죽제품	26.1	053	도소매 서비스*	8,701.8
013	목재및목제품	16.2	054	육상운송서비스*	1,819.1
014	펄프 및 종이제품	85.4	055	수상운송서비스	1.2
015	인쇄 및 복제	127.2	056	항공운송서비스	18.6
016	석탄 및 석유제품	8.9	0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243.9
017	기초화학물질	15.2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8,547.0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5.4	059	통신서비스	222.8
019	화학섬유	0.8	060	방송서비스	35.3

분류 번호	상품 (산업)	취업 유발효과	분류 번호	상품	취업 유발효과
020	의약품	227.7	061	정보서비스	30.8
021	비료 및 농약	16.2	062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106.2
022	기타 화학제품	58.4	063	출판서비스	86.8
023	플라스틱 제품	87.2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26.9
024	고무제품	15.5	065	금융서비스	273.1
025	유리 및 유리제품	6.9	066	보험서비스	189.7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6.5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79.2
027	철강1차제품	5.3	068	주거서비스	0.0
028	철강가공제품	2.7	069	부동산서비스	697.3
029	비철금속피 및 1차제품	15.1	070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42.8
030	금속 주물	3.3	071	연구개발	0.0
031	금속제품	64.6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473.3
032	일반목적용기계	36.9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116.6
033	특수목적용기계	13.7	074	사업지원 서비스*	10,924.4
034	전기장비	53.5	075	공공행정 및 국방	12.6
035	반도체	2.4	076	교육서비스	37.5
036	전자표시장치	1.5	077	의료 및 보건*	5,197.8
037	기타 전자부품	13.0	078	사회복지 서비스	0.0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5.6	079	문화서비스*	2,047.5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12.2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48.9
040	가정용 전기기기	10.6	081	사회단체	64.2
041	정밀기기	57.4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616.6
총효과 (1-82)		45,181.1			
직접효과		35,437.0			
간접효과		9,744.0			

\* 직접 유발효과산업 부문으로 도소매서비스, 육상운송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의료 및 보건서비스, 문화서비스 산업부문임

### 3.5 의료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가 국내 생산을 유발하고 이러한 생산활동에 의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수요의 증가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한국은행, 2014)
- 따라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단위를 보여주는 계수임
- 의료관광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부가가치유발계수에 투입액인 의료관광산업의 최종지출액을 곱한 값으로 산출됨
  - 의료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도·소매서비스 2,976억 64백만원, 육상운송서비스 374억 79백만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063억 30백만원, 사업지원서비스 2,992억 39백만원, 의료보건서비스 3,019억 75백만원, 문화서비스 701억 57백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의료관광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접유발효과를 의미하며 의료관광산업의 부가가치직접유발효과는 총 1조 6,887억 77백만원으로 나타남
  - 반면 전체산업의 부가가치유발간접효과는 5,101억 31백만원으로 나타나 의료관광산업으로 발생한 직·간접 효과를 포함한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1,786억 46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5-7> 의료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분류번호	상품(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	분류번호	상품	부가가치유발효과
001	작물	28,031.7	042	자동차	3,957.2
002	축산물	7,480.5	043	선박	129.0
003	임산물	2,076.2	044	기타 운송장비	478.5
004	수산물	7,055.5	0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9,519.4
005	농림어업 서비스	969.6	0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4,413.8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170.7	047	가스, 증기 및 온수	4,902.0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240.8	048	수도	3,797.2
008	식료품	19,106.8	049	폐수처리	1,230.0
009	음료품	14,012.9	0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5,198.7
010	담배	0.0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1,770.5
011	섬유 및 의복	4,747.9	052	토목건설	0.0
012	가죽제품	945.8	053	도소매 서비스*	297,664.3
013	목재및목제품	860.3	054	육상운송서비스*	37,479.5

분류 번호	상품(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류 번호	상품	부가가치 유발효과
014	펄프 및 종이제품	7,392.5	055	수상운송서비스	168.1
015	인쇄 및 복제	4,840.9	056	항공운송서비스	3,278.5
016	석탄 및 석유제품	15,853.9	0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16,025.9
017	기초화학물질	4,449.9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06,330.0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818.6	059	통신서비스	24,507.9
019	화학섬유	122.9	060	방송서비스	3,799.9
020	의약품	34,424.1	061	정보서비스	3,330.5
021	비료 및 농약	1,376.4	062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6,960.2
022	기타 화학제품	7,057.5	063	출판서비스	3,243.4
023	플라스틱 제품	6,535.2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1,138.7
024	고무제품	1,618.9	065	금융서비스	37,932.9
025	유리 및 유리제품	1,543.3	066	보험서비스	9,722.2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511.5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8,796.4
027	철강1차제품	1,852.2	068	주거서비스	0.0
028	철강가공제품	928.3	069	부동산서비스	62,464.1
029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1,134.3	070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3,747.0
030	금속 주물	269.2	071	연구개발	0.2
031	금속제품	6,277.4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6,175.8
032	일반목적용기계	3,471.0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5,651.6
033	특수목적용기계	1,092.0	074	사업지원 서비스*	299,239.9
034	전기장비	6,039.1	075	공공행정 및 국방	983.5
035	반도체	632.4	076	교육서비스	1,626.0
036	전자표시장치	623.0	077	의료 및 보건*	301,975.7
037	기타 전자부품	883.2	078	사회복지 서비스	0.0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878.8	079	문화서비스*	70,157.6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1,582.6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2,867.6
040	가정용 전기기기	1,228.4	081	사회단체	1,369.5
041	정밀기기	4,648.4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11,959.5
총효과 (1-82)				1,688,777.2	
직접효과				1,178,646.0	
간접효과				510,131.2	

\* 직접 유발효과산업 부문으로 도소매서비스, 육상운송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의료 및 보건서비스, 문화서비스 산업부문임



## VI. 결 론

1. 의료관광 경제적 파급효과 요약
2. 결 론



# 1 요약

## 1.1 의료관광산업의 분류

- 의료관광산업을 핵심의료관광산업, 연계형의료관광산업, 의료관광지원산업 등의 3개 대분류로 구분하며 중분류 4개, 소분류 12개, 세분류 36개로 분류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분류체계의 핵심의료관광산업 중 보건·의료산업으로 대응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I숙박 및 음식점업, H운수업은 핵심의료관광산업 중 핵심관광산업으로 대응시킴
- G도매업 및 소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연계형의료관광산업으로 대응
-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K금융및보험업, C제조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의료관광지원산업으로 대응함
- 의료관광산업분류의 대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 세세분류 연계 현황을 보면 핵심의료관광산업은 14개 소분류와 57개 세세분류로, 연계형관광산업은 10개 소분류와 65개 세세분류로 의료관광지원산업은 12개 소분류와 26개의 세세분류로 연계됨

<표 6-1>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의료관광산업 대분류 대응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의료관광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보건·의료산업	핵심의료산업 연계뷰티·웰니스산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H 운수업	→	핵심의료 관광산업	핵심관광산업 의료관광유치산업 관광숙박업 관광식·음료업 관광교통업
G 도매 및 소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연계형의료관광산업	소매업 문화, 여가관련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C 제조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의료관광지원산업	의료관광관련서비스업 의료관광교육서비스업 의료관광보험업 의료관광관련 제조업

## 1.2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의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성됨
  - 직접효과는 의료관광객의 직접 지출항목과 연관된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액을 의미함
  - 간접효과는 의료관광객의 직접 지출항목과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산업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의미함
- 의료관광산업의 항목별 지출액은 총 7분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핵심적으로 의료비, 에이전시 지급비, 숙박비, 쇼핑비, 교통비, 식음료비, 오락/문화/운동비용으로 구분하였음
- 의료관광 관련 활동별 지출액을 산업연관에 적용 분석 결과 2014년 자료 기준으로 총생산유발효과 3조 5,635억 62백만원 으로 추정되며 직접효과는 2조 2,233억 26백만원, 간접효과는 1조 3,402억 36백만원으로 추정됨
  - 직접효과에는 도소매서비스, 육상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의료 및 보건, 문화서비스 부문이 포함됨
  - 간접효과에는 직접효과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한 산업연관표(81부문)에서의 75 부문에 대한 유발효과를 포함함
- 의료관광산업의 총 취업유발효과는 45,181명으로 추정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6,887억 77백만원으로 의료관광객 총 지출액(1조 9,931억 58백만원)의 약 69.3%으로 추정됨

<표 6-2> 의료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명)*	부가가치유발효과
총효과(1+2)	3,563,562.6	45,181.1	1,688,777.2
직접효과 (1)	2,223,326.5	35,437.0	1,178,646.0
간접효과 (2)	1,340,236.1	9,744.0	510,131.2

주 \*: 취업유발효과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용임시직, 임금근로자, 상용임시직,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 2 결 론

### Ⅰ 의료관광산업의 통합통계자료 생산 필요

- 현재 의료관광통계 자료의 생산은 의료관광객의 의료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의료관광객의 관광활동 및 관광 지출에 대한 통계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점이 있음
- 의료관광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설정을 통해 관련 산업의 투자 및 진흥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의료관광 산업 통계 자료의 생성이 필요함

### Ⅱ 분류체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후속조치 필요

- KSIC을 기준으로 의료관광 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하는 의료관광산업분류체계(안)을 설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 및 세미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의료관광산업분류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의료관광산업분류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계청, 한국은행 등 통계생성기관들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함
- 의료관광산업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 확보된 데이터를 통한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 측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Ⅲ 의료관광산업의 명확한 산업분류체계의 제도화 필요

- 의료관광은 의료와 관광의 새로운 융복합산업으로서 전통적인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이 새로운 가치사슬을 가진 신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재 의료관광유치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명확한 산업 분류 기준이 애매하여 전적으로 정책담당자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수산업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적 단계에서의 산업분류체계안을 제시하였으나 추후 연구 등을 통하여 산업분류체계를 보완하여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 의료관광산업의 기초자료 생산 및 산업분류 필요

-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관광 산업범위를 구체화 하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체의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의료관광 산업의 투자액, 수요액등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함
- 융합형 관광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의 분류체계안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근거한 분류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료관광 산업을 산업연관표상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의료관광산업 범위를 반영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범위 조정 필요

- 의료관광산업군은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높고 타 산업과 융합·연계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산업범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의 범위와 상이한 측면이 존재함
- 현재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의 범위와 관광산업특수분류체계는 의료관광산업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며 따라서 관광진흥법상 의료관광산업을 하나의 범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 의료관광 지원산업군(전문교육업체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현재 시행중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전문인력 양성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교육부등과 협업하여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2년제, 4년제 교육기관에 보건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글로벌 의료관련 소양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의료 관련 학과목을 개설하고 특별 프로그램 등을 도입 하는 등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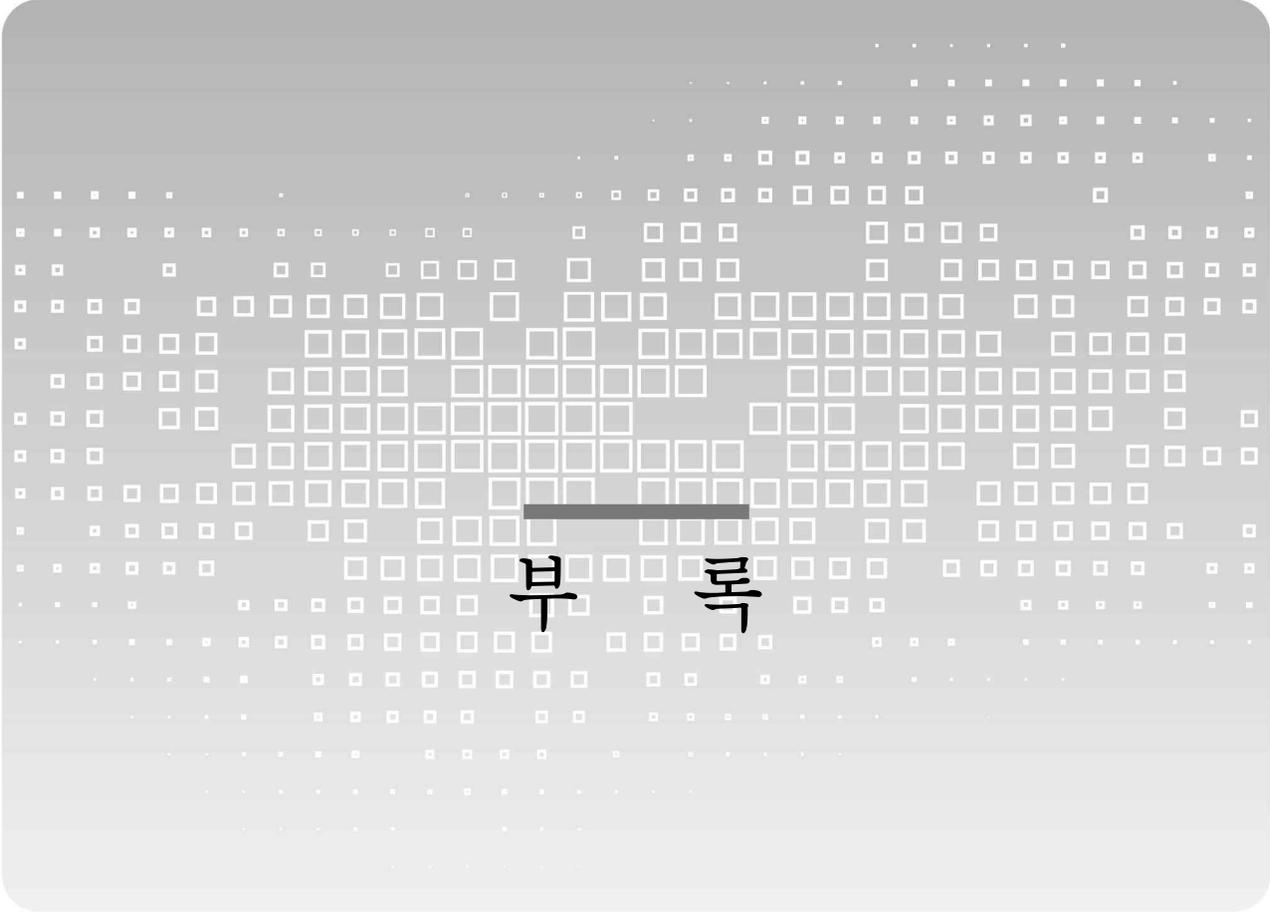
■ 뷰티·웰니스 의료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

- 의료관광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웰니스 리조트에 대한 의료관광객의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파악됨
- 미용 및 스파, 한방을 중심으로 뷰티·웰니스 산업체는 관광객의 장기체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산업적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곽명섭(2010).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10권 1호.
- 김기홍(2010).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으로써 우리나라 국제의료관광산업의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2호, 189-208.
- 김미경(2010). 한국의료관광 참여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일본과 중국의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제24권 제6호, 213-232.
- 나현아(2014). 의료관광 유형이 마케팅 믹스 요인에 따라 의료관광 선택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한의사협회(2014).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부창산(2009). Health Tourism 유형별 개념정립과 개발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QFD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2015). 서울의료관광 실태분석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정책보고서.
- 소현정.(2011). 한국 의료관광상품 선택속성에 관한 실증연구-외국인 구매 영향요소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용재·최화열·이문규(2010). 의료관광객의 위험지각이 여행에 미치는 영향 -사전지식과 지각된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권 1호.
- 유향이(2014). 한국의료관광 정책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환·김만오·김균민(2009). 의료서비스 국제화와 법적분쟁. 『한국의료법학회지』, 17권 1호.
- 이창우·이해종·박소정(2013). 충수절제술, 수정체소절개, 제왕절개술 의료수가 수준에 대한 OECD 국가비교연구. 『의료정책』, 523-532.
- 이해종(2012). OECD 주요 의료수가 비교. 의료관광세미나 발표자료.
- 이희열.(2011). 지각된 의료관광 요인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춘례(2011). 의료관광 서비스품질, 가치, 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현숙(2011). 의료관광자의 관광동기, 의료서비스품질, 태도와의 관계,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심 ( Qin Zhang ), 장혜정(2015). 중국인 의료관광 수요자의 국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의료경영학연구』, 9권 1호.
- 정진용·김희정·신유원(2013). 글로벌 헬스케어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효과 분석. 서울:보건산업진흥원.
- 제서운, 공순구(2015). 의료관광유형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의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5권 제1호(통권 제63집)
- 최남섭(2012).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관광공사(2014). 의료관광만족도 및 국내 의료기관 ‘관광’서비스 부문 수용태세 조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2013 International Patient Satisfaction Survey.

- Connell, J.(2006). Medical tourism: Sea, sun, sand, and surgery. *Tourism Management*, 27, 1093–1100.
- Goodrich, J. N.(1993). Socialist Cuba: A Study of Health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rch*, 32(1), 36–41.
- Gupta, Amit sen(2004). Medical Tourism and Public Health. *People's Democracy*, 27(19).
- Hall, C. M(1992). *Adventure Sport and Health Tourism*. In B. Weiler & C.M. Hall(ed), Special–Interest Tourism, London: Bellhaven Press.
- Henderson. J.(2004). Healthcare Tourism in southeast Asia. *Tourism Review International*. 7. 111~121.
- Law, E(1996). Health Tourism: A business opportunity approach. Ins. Cliff & S. J. Page(eds.). *Health and the international tourist*(198–214). London: Routledge.
- Medlik, S.(1996). Dictionary of Travel, Tourism and Hospital, British Library Cataloging in Publication Data, 125.
- Reddy, S. G., V. K. York & L. A. Branno(2010). Travel for treatment: students' perspective on medical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2(5), 510–522.
- RNCOS(2008). Asian Medical Tourism Analysis 2008–2012.
- Sayili, M., Akca, H., Duman, T,& Esengun, K.(2007).PsoriasisTreatmentViadoctorFishes as Part of Health Tourism: A Case Study of Kangal Fish Spring, Turkey. *Tourism Management*, 28, 625–629.
- Smith & Puczko(2009). Health and wellness Tourism. Elsevier. Oxford.
- Yap·Jason(2006). Medical Tourism/Medical Travel, SMA New, 38(5), May.



# 부 록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지



## [부록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 ■ 조사 배경 및 목적

- 의료관광 산업 분류체계 설정을 위한 의료관광 산업범위, 관련 정책과 분류개발의 필요성, 분류체계(안)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함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관광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의료관광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하고자 함

### ■ 조사 설계

- 의료관광전문가(학계, 정부기관, 의료기관 등) 35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한달 간 이메일 설문조사 진행

### ■ 조사 내용

- 의료관광산업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 의료관광산업의 범위(관광분야, 건강증진을 위한 비 의료행위, 제조업), 의료관광 산업분류의 필요성, 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와 의료관광산업의 연관성

## [부록2]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지

의료관광산업분류체계 설정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의료관광 산업분류체계 설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현재 수행중입니다. 본 설문은 의료관광산업의 구체적인 분류체계 설정의 필요성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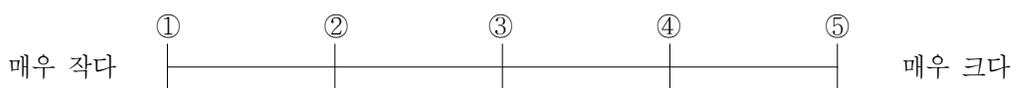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오로지 분석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귀중한 정책판단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연구책임: 이강욱 선임연구위원  
유지윤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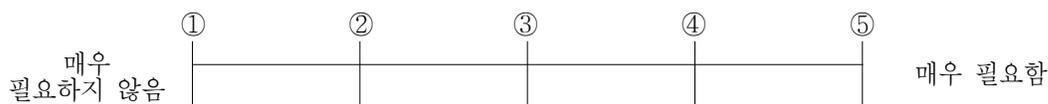
연구원 전화번호 : 02)2669-9878	휴대폰 : 010-8749-2020
조사담당 : 정성희 위촉연구원/이상미 조사원	이메일 : jsh@kcti.re.kr

의료관광 관련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관광’을 광의의 의미에서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의료관광으로 한정하며 의료관광은 치료 및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1년 미만의 여행을 행하는 방문객의 활동을 의미</li> <li>■ ‘의료관광객’은 이러한 의료관광을 하기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의미함</li> <li>■ ‘의료관광사업’은 광의로 의료관광객의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을 위한 시설 또는 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활용을 의미함</li> <li>■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u>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 의료관광객을 알선하고자 하는 유치업자, 의료관광 정보제공업, 보험업, 의료관광 관련 제조업, 뷰티·웰니스 업체를 포함하고 관광분야에서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등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를 포함하고자 함</u></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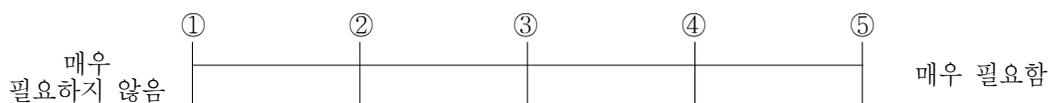
문1. 의료관광 관련 개념을 참고하시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의료관광 산업분야가 얼마나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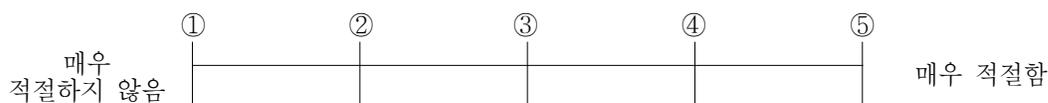
**문2.**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의료관광 사업자를 의료기관 및 의료유치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관광 사업자의 범위에 관광분야(숙박, 교통, 쇼핑, 식/음료, 오락/문화/운동)관련 사업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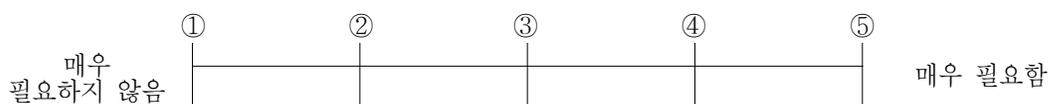
**문3.** 현재 의료관광은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들의 치료 및 진료 등의 의료활동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건강증진을 위한 비 의료행위(예를 들어, 마사지 샵, 에스테틱 샵, 리조트 스파)를 의료관광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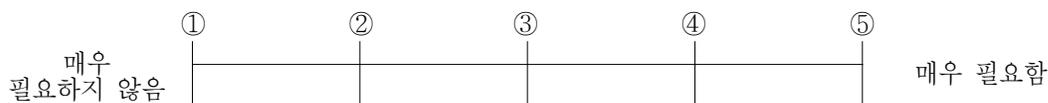
**문4.** 의료관광 산업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의료관련 제조 및 유통분야(예를 들어 차류가공업,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 현재 의료관광분야의 통계는 치료 및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국적, 진료비, 병원유형, 진료과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관광객의 관광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6.** 의료관광산업의 정책수립 및 통계자료 활용을 위하여, 의료관광 산업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7.** 다음은 의료관광산업분류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한 항목들입니다. 각 문항들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동의하지 않음 ← → 매우 동의함				
1) 융합산업으로서의 의료관광산업범위 설정	①	②	③	④	⑤
2) 통계생산을 위한 근거자료 생성	①	②	③	④	⑤
3) 합리적 정책의사결정 기초자료 활용	①	②	③	④	⑤
4) 융합산업으로서 의료관광 산업진흥	①	②	③	④	⑤
5)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료관광의 기여도 산출	①	②	③	④	⑤
6) 기타의견 제시 ( )					

문8. 다음의 항목은 의료관광산업과 연계된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부문(소분류)입니다. 의료관광 산업의 관점에서 각 항목의 산업 부문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낮음 ← → 매우 높음				
1)	861	병원	①	②	③	④	⑤
2)	862	의원	①	②	③	④	⑤
3)	96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①	②	③	④	⑤
4)	713	광고업	①	②	③	④	⑤
5)	75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①	②	③	④	⑤
6)	551	숙박시설 운영업	①	②	③	④	⑤
7)	561	음식점업	①	②	③	④	⑤
8)	562	주점 및 비알콜음식점업	①	②	③	④	⑤
9)	491	철도운송업	①	②	③	④	⑤
10)	492	육상여객운송업	①	②	③	④	⑤
11)	501	해상운송업	①	②	③	④	⑤
12)	502	내륙수상 및 항만내운송업	①	②	③	④	⑤
13)	511	정기항공운송업	①	②	③	④	⑤
14)	512	부정기항공운송업	①	②	③	④	⑤
15)	471	종합소매업	①	②	③	④	⑤
16)	47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①	②	③	④	⑤
17)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①	②	③	④	⑤
18)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①	②	③	④	⑤
20)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소매업	①	②	③	④	⑤
21)	478	기타 상품전문소매업	①	②	③	④	⑤
22)	479	무점포소매업(전자상거래 등)	①	②	③	④	⑤
23)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공연시설운영 등)	①	②	③	④	⑤
24)	902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서비스업(박물관 및 사적지)	①	②	③	④	⑤
25)	912	유원지 및 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①	②	③	④	⑤
26)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포털, 정보매개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⑤
27)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의료관광정보제공 등)	①	②	③	④	⑤
28)	691	운송장비임대업(자동차렌탈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29)	692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스포츠용품임대업 등)	①	②	③	④	⑤
30)	856	기타교육기관(의료관광전문인력양성사업)	①	②	③	④	⑤
31)	651	보험업	①	②	③	④	⑤
32)	107	기타식품제조업(인삼 가공식품 제조 등)	①	②	③	④	⑤
33)	204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①	②	③	④	⑤
34)	211	기초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①	②	③	④	⑤
35)	212	의약품 제조업	①	②	③	④	⑤
36)	213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품관련제품제조업	①	②	③	④	⑤
37)	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①	②	③	④	⑤

문9. 다음은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분류체계와 이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다음의 대분류 분류 기준 및 개념을 살펴보고 현재 분류체계 안을 참고하여 대, 중, 소, 세분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페이지 의료관광산업분류 체계 ‘의견제시란’에 기재

대분류 분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의료관광산업은 보건·의료산업과 핵심관광산업을 포함하며 의료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여 필수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산업군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산업은 기존 의료관광산업의 핵심분야인 보건·의료분야와 관광분야의 뷰티·웰니스 분야를 포함하는 산업군임</li> <li>▶ 핵심관광산업은 의료관광객들의 수요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산업군으로 관광산업분야에서의 숙박, 식음료산업과 교통을 포함함</li> </ul> </li> <li>■ 연계형의료관광산업은 의료관광객들이 보건·의료산업의 부문의 활동이외에 부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산업군을 의미함</li> <li>■ 의료관광지원산업은 의료관광객들의 직접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나, 간접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산업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산업군으로 의료관광정보제공, 의료관광전문가 양성·교육, 의료관광 관련 보험업, 의료관광관련제조업을 포함함</li> </ul>
--------------	---

<의료관광 산업분류체계(안)>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코드 및 항목명		의료관광산업 세분류별 주요산업	의견제시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항목명				
1	핵심 의료관광 산업	1-1 보건·의료 산업	1-1-1 핵심 의료산업	1-1-1-1	병원	861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1-1-1-2	의원	862	의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기타 의원 등	
			1-1-2	연계뷰티·웰니스산업	1-1-1-3	미용 및 유사서비스업	96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미용, 피부관리샵, 마사지업소, 다이어트센터
		1-2 핵심 관광 산업	1-2-1 의료관광 유치산업	1-2-1-1	광고업	713	광고업	의료관광 광고 대행, 작성업 등	
				1-2-1-2	여행사업, 기타여행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여행사, 숙박알선, 여행자 가이드서비스업	
			1-2-2 관광 숙박업	1-2-2-1	숙박시설 운영업	551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 리조트, 모텔, 유스호스텔, 콘도, 펜션, 레지던스, 홈스테이, 게스트 하우스	
	1-2-3 관광식·음료업				1-2-3-1	음식점업	561	음식점업	일반음식점, 기타음식점업, 이동식음식점
			1-2-3-2	주점 및 비알콜음식점업	562	주점 및 비알콜음식점업	주점, 주스전문점, 커피숍		
	1-2-4 관광 교통업		1-2-4-1	철도운송업	491	철도운송업	도시간철도(KTX포함), 관광열차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코드 및 항목명		의료관광산업 세분류별 주요산업	의견제시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항목명					
				1-2-4-2	육상여객운송업	492	육상여객운송업	도시철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1-2-4-3	해상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외항여객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1-2-4-4	내륙수상 및 항만내운송업	502	내륙수상 및 항만내운송업	내륙수상여객운송업			
				1-2-4-5	정기항공 운송업	511	정기항공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1-2-4-6	부정기항공 운송업	512	부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			
2	연계형 관광산업	2-1	연계 형 관광 산업	2-1-1	소매업	2-1-1-1	종합소매업	471	종합소매업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 아웃렛 등 쇼핑몰,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	
						2-1-1-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47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 재래시장, 기타소매업소	
						2-1-1-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소매, 가전제품 소매	
						2-1-1-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가죽제품 소매업	
						2-1-1-5	문화, 오락 및여가용품소 매업	476	문화, 오락 및여가용품소매업	음반, 비디오물 소매, 스포츠용품 소매, 게임용구 소매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코드 및 항목명		의료관광산업 세분류별 주요산업	의견제시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항목명					
					2-1-1-6	기타상품 전문소매업	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의약품, 의료용품 소매, 의료용 기구 소매, 화장품 소매, 사무용기기, 사진장비, 시계, 귀금속 소매		
					2-1-1-7	전자상거래, 기타통신판매	479	무점포소매업	전자상거래, 기타 통신 판매업		
					2-1-2-1	공연시설 운영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시설 운영업		
					2-1-2-2	박물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시설 운영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 사 여가관련서비스업	박물관, 사적지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2-1-2-3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서비스업	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갠블링 및 베탱업, 무도장 운영업		
					3-1-1-1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의료관광웹호스팅서비스, 포털,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3	의료관 광 지원산 업	3-1	의료 관광 지원 산업	3-1-1	의료관광 관련서비 스업	3-1-1-2	의료관광정보 제공사업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	의료관광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3-1-1-3	운송장비 임대업	691	운송장비임대업	자동차 및 운송장비 임대		

의료관광산업 분류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코드 및 항목명		의료관광산업 세분류별 주요산업	의견제시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항목명				
				3-1-1-4	스포츠및레크 레이션용품임 대업	692	개인및가정용품임 대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용품임대업		
		3-1-2	의료관광 교육 서비스업	3-1-2-1	기타교육기관	856	기타교육기관	의료관광전문인력양성사업		
		3-1-3	의료관광 보험업	3-1-3-1	보험업	651	보험업	의료관광객대상 보험사업		
		3-1-4	의료관광 관련 제조업	3-1-4-1	인삼식품및건 강기능식품 제조업	107	기타식품제조업	인삼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3-1-4-2	화장품제조업	204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3-1-4-3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화합물제조, 생물학적제제 제조 등		
				3-1-4-4	의약품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제조, 한의원약품제조		
				3-1-4-5	의료용품및기 타의약품관련 제품제조업	213	의료용품및기타의 약품관련제품제조업	의료용품, 기타의약품관련제품제조업		
				3-1-4-6	의료용기기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방사선장치, 전기식진단기기제조, 치과용기기제조, 정형외과용기기제조, 의료용가구제조,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 등		

문10. 의료관광 산업분류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면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 사용

♥ 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수령하실 주소를 적어주세요 ♥

성함		연락처	
근무처		부서명/직급	
수령 주소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연구진

- 연구책임    유 지 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 강 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 원     정 성 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 자문위원    서 만 영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한 동 우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지원실)

## 의료관광 산업분류체계 설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발    행    일    2015년 6월  
발    행    처    한국관광공사  
연   구   기   관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    쇄    인    크리홍보주식회사

## 의료관광 산업분류체계 설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